

“북한 강제노동,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최신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장요한 기자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제임스 히난 소장이 온라인 줌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장요한 기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 개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소장 제임스 히난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신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강제노동' 발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대표해서 발표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되었으며 여러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해당국을 탈출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증인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83건의 면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볼카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말에 따르면 “보고서에 담긴 진술 내용을 통해 강제노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고통이 규모 면에서나, 폭력 및 비인도적 대우의 수위 면에서나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한지 알 수 있다”며 “이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는데, 심지어 급여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을 그만둘 수 없으며 보호의료 조

치나 휴식 시간도 제공되지 않고, 식량이나 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부담 노동을 도맡는 일이 빈번하다. 지속적인 감시하에 놓이고 구타는 예사로 당하는 한편, 여성은 계속해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일일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맞았다. 밥도 적게 준다. 아는 언니가 작업반 반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힘들어 했다’는 등 진술했다”고 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여섯 가지의 강제노동 유형을 살핀다.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혁명 돌격대의 활용, 작업 동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이라고 했다.

또 “해당국 국민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 착취당한다고 결론 내린다”며 “해당 제도가 국민을 통제 및 감시하며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특히 “구금 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한다. 해당 시설에 강제노동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비인도적 환경 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을 강요 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구금된 민간인을 거의 완전히 통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도소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착취는 일부 경우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범죄로서의 노예화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이나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정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거주지를 결정짓기도 한다”며 “보고서에 묘사된 것처럼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없으며, 직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구금될 위험에 놓이고, 급여가 계속해서 미지급되는 형태는 해당국 내 제도화된 강제노동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순서에선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제임스 히난 소장이 온라인 줌을 통해 답변했다.

“통일시대 북한 복음화하는 선교사로 탈북민 사용하실 것”

한교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랑 나눔' 행사 가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회실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랑 나눔' 행사를 갖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로·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고 한국교회와 탈북민 형제 자매를 이웃이 아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환영사에서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렇게 남북이 분단됐다. 지금까지 공산 치하에서 70년이 넘도록 자유를 갈망하며 살다가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탈출한 탈북자들이 3만4천여 명이 넘는다는데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 이 자리에 계신 탈북민뿐 아니라 모든 탈북민들을 하나님께 통일시대에 북한을 복음화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여성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탈북민초청 ‘힐링캠프’를 통해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파주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안보견학을 하기도 했다”며 “또 추석을 맞아 광화문 경복궁에서 사진도 찍고, 서울시티버스를 타고 서울투어에 나서기도 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매년 사람의 김장나눔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인젠가 하나님께서 남북통일을 이뤄주시는 날 여러분과 한교연이 평양에서 오늘과 같은 잔치를 열게 되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 나눔 행사는 1부 개회예배와 2부 나눔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상임회장 홍경자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공동회장 양태화 목사의 기도, 총무협 부회장 신수교 목사의 성경봉독(에스겔 37:22), 상임회장 김노아 목사의 ‘남북통일 국가시대가 온다’란 제목의 설교에 이



한교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랑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한교연

[인터뷰] 한국저영향 개발협회 최경영 회장 >> 7면

“트럼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 듣길” >> 8면

현대건설

오피스텔 165실

펜트하우스 타입 오피스텔

- Roof
- 17F

2실 및 3실 타입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1~3F 상업시설

출퇴근 30분 시대!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개발로 지역기차상승기대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수도권 전지역 1시간내 이동 가능

- 지하 1층: 버스-택시 정류장
- 지하 2-3층: 공공 상업시설
- 지하 4층: 통합 대합실
- 지하 5층: 광역철도(GTX-A-C)
- 지하 6층: 위례-신사선
- 지하 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삼성역 GTX-A: 운정-일산-삼성-동탄-평택
삼성역 GTX-C: 덕정-청량리-삼성-수원-천안-이산

파주 운정 - 삼성역: 26분 | 일산 키타엑스 - 삼성역: 23분
안주 덕정 - 삼성역: 27분 | 수원역 - 삼성역: 26분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하1층 - 지하7층)

지하1층: 버스, 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지하6층: 위례 - 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유튜브에서 "생생본방특"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와 무관합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LIFE INFRA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잠실종합운동장 인접
- 삼성동 생활편의와 대치동 명품교육을 함께 누리는 더블 생활권

TRAFFIC

-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수인분당선 등 인접
- 도심공항터미널 및 다양한 버스노선 등으로 편리한 대중 교통망

VISION

- 국제교류복합지구(예정), GTX-A/C(예정) 영동대로 복합환승 센터(예정)
- 전시, 컨벤션, 업무시설 등 강남중심업무 지구(GBD)의 높은 프리미엄

1666-1691

기장, 4년 만에 '3파전'으로 총무 선거 치른다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 개최
총무 후보에 이성진·이윤복·이훈삼 목사
총회장·목사부총회장은 단독, 장로부총회장은 2파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가 최근 서울 거암교회(담임 김중하 목사)에서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총회장 후보인 박상규 목사(현 부총회장)와 부총회장 후보인 이종화 목사(총남노회 초대교회) 및 이상재(전북동노회 오수교회, 기호 1번)·김재현(광주남노회 노화방주교회, 기호 2번) 장로, 총무 후보인 이성진·이윤복·이훈삼 목사가 참석해 소견을 발표하고 주요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은 모두 단독 후보이고, 장로부총회장은 2파전, 총무는 3파전으로 치러진다. 특히 인기 4년의 총무를 새로 뽑는 총무 선거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먼저 총무 후보 이성진 목사(제주노회 제주남부교회, 기호 1번)는 "우리 민족에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할 때 만우 송찬근 목사님과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한국신학대학교를 세우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 가셨고, 저희가 그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다"며 "이 땅에 민주화가 필요할 때 김상근 총무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 기장이 말레니움을 준비할 때 박종

화 총무님, 그리고 말레니움을 시작할 때 배태진 총무님과 같은 선배님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 가셨고 저희는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상에서는 2030년을 티핑포인트로 해서 기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위기가 가속화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누군가가 또 먼저 걸어가야 한다. 제가 그 길을 먼저 걸어 가겠다.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 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윤복 목사(전북노회 전주신학교, 기호 2번)는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때에 기장이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농부가 실망해서 포기하고 좌절할 순 없다. 세우기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을 주실 줄 믿는다"고 했다.

이 목사는 "총회를 향한 많은 현장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 벽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며 "스러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 해보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로 도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장 제109회 총회 총무 후보자들. (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이성진·이윤복·이훈삼 목사 ©기장

마지막으로 이훈삼 목사(경기노회 주민교회, 기호 3번)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기는 근원으로 돌아갈 때 새롭게 자기를 정립할 수 있다. 다시 초대교회 정신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그리고 만우와 장공의 기장정신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 아래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 모든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현존는 공동체일 때 교회일 수 있다"고 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기 위해 뜨겁게 기도 하면서 그 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한다. 기장교회 곳곳마다 말씀



기장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

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 기도와 찬양, 간증이 개인과 기복주의를 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제도, 문화,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까지 이뤄나갈 때 여기가 기장의 포인트"라며 "총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

도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기장을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109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는 오는 22일 청주 우암교회, 23일 광주 양림교회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는 오는 가을에 있을 제110회 정기총회 첫째 날 치러진다. 김진영 기자

이기용 목사 "청년의 때 말씀 붙들고 뜻대 향해 나아가야"

‘청년 성령컨퍼런스’서 설교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가 2024 다음세대 성령컨퍼런스를 3주에 걸쳐 진행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 성령컨퍼런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 성령캠프',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청소년 성령컨퍼런스'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되는 청년 성령컨퍼런스에서 둘째날 이기용 목사가 '탐욕의 마음을 버려라(사무렐 1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가라는 뜻이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암몬 족속을 치게 되었는데 그 암몬은 규모가 큰 나라였다. 승승장구하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다. 즉, 적당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뜻이다. 고난이 없고 어둠이 없다면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된다"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며 마치 익숙하고 편안한 것처럼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 맞이하는 위기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될 때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을 굿 뉴스라고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잘 나아갔던 다윗도 위기를 겪고 무너지게 되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이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해선 안 된다"며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는 이런 위기로 인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위기로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삶의 고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우리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란다. 여러분이 광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 인생의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것을 알고 믿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목사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무력감과 나태함이 찾아왔다. 그 나태함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오는 것인데 나태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관리를 하시길 바란다. 말씀은 성령의 금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료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다 이루고 나서 무료해 졌을 때 경건이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가 무력해지는 것은 경건이 무너지기 때문이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목표를 다 이루고 다른 목표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나태해지는 것은 경건이 무너지고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료한 것보다 나은 것"이라며 "무료할 때 탐욕이 들 어온다. 다윗은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며 들어온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 문화는 유혹거리가 넘치는 시대이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다윗은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을 통해 축복이 들어오기도 한다. 따라서 눈이 잘 못된 곳에 고정되어버리면 잘못된 것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오직 말씀 밖에 눈을 깨끗하게 하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눈이 어두워졌다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은 내 눈이 가는



2023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이기용 목사가 설교했다. ©신길교회

곳을 향해 나아간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눈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안목의 정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3가지 정욕이 있다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 중에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이다. 안목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쓸 수 있길 바란다"며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란다. 다윗이 말씀이 있고 깨어있었다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욕심이 더 컸으며 성욕 뿐만 아니라 권력, 소유욕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처럼 다윗의 욕심이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말씀은 영적 무기이다. 많이 알고 있으면 잘 분별할 수 있고 싸워 이길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는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정욕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길 바란다. 목표 없이 살면 당하게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이다. 우리가 무료한 것은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 뜻대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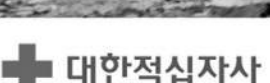
우리는 간다. 기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누구보다 먼저 진심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곳 어디든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대법, 여성 교인 성추행 혐의 기감 목회자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경신교회의 체모 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체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

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전에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여성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단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기감 서울연회는 체 목사와 관련한 대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교리와 장정에 따라 그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모 목사는 2021년 10월 목양실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으며, 2022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징역 2년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노형구 기자

한기총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 바르게 세워져야”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

동성에 관련 최근 판결, 헌법 초월해 자의적 판단 법질서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려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발의 말아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가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제목의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최근 발표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

절 제76주년을 맞아, 법치(法治)에 대해서 생각하며,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잘 존중하고, 나아가 헌법이라는 토대 위에서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보면,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헌법을 초월한 자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에 크게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한기총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동성애에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동성 결합 관계에 ‘역지로’ 배

우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가져와 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은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고 했다. 또한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판결 역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을 뛰어넘어 법질서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일”이라며 “하지만 한기총은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지난 십여 년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임을 밝혀왔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한기총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

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또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되었다”며 “타지역의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고, 동성애, 동성혼 관련 차별금지법도 더 이상 발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을 이유로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균형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유기성 목사 “예수님과 동행, 개인 영성 아닌 공동체 영성”

‘예수동행신학’ 발간 기념 북 콘서트 개최



위드저스미니스트리(예수동행)와 도서출판 위드저스가 최근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카페 타센에서 목회자-신학생성도 총 60명을 대상으로 ‘예수동행신학’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유기성 목사(예수동행미니스트리 이사장)와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가 강사로 나섰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성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SNS



‘예수동행신학’ 발간 기념 북 콘서트 진행 사진(왼쪽 정성욱 교수) ©SNS

정 교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동행일기를 쓰고, 그것을 나누는 방을 만든 것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권면 즉,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여기서 ‘피차’라는 말이 중요한데, 서로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용기를 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며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확인-점검하고, 훈련하며, 모범을 보여 드리는 것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을 개발시켜 놓으시고, 인터넷을 통해 교인들이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라고 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즉, 서로 세워 주는 것”이라며 “예수동행일기운동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로 나오는 삶이다. 물론 동행일기를 써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써 감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저는 2015년에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 당시 영성일기(지금의 동행일기)를 추천 받았지만, 2016년부터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해 8년간 계속해서 쓰고 있다”며 “8년간 쓰면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그 전엔 주님을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 행복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예수동행일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위한 목회적 방법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유기성 목사는 최근 영국기독교교육직지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유 목사는 “(방문을 통해) 이 천년의 기독교 역사라고 말하는 영국교회와 가능했던 일은 영국교회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예수동행신학’ 출간, 예수동행운동에 견고한 토대 놓는 작업

먼저, ‘예수동행일기운동과 그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정성욱 교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11절을 봉독하며 “이 말씀은 예수동행일기운동의 목적과 부합된다. 간단히 말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동행운동은 우리가 특별한

아울러 예수동행일기운동에 대해 제언

“예수동행운동은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만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5년 일직 은퇴를 하고 예수동행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며 “전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그것을 기록해보라고 말한다”고 했다.

었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혼자 조용히 곁방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고 수 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외치는 것은 다 사기꾼이라는 말이 마음 아프게 들렸다”며 “개인적 관심사이기보다는 전적인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공동체 영성”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솔직한 것이 아닌 나눔용 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나눔용 일기는 공동체 영성이 다. 흔히들 말하는 솔직한 일기 속에는 묘하게도 약한 영이 주는 생각을 담아낸 글들이 많다”며 “우리가 담아내는 일기는 나의 생명왕 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철저히 주님께 검증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동체 영성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장요한 기자

행복한농업,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기독교인들의 ‘돈 걱정’,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

‘가장 큰 고민’ 1위, 2012년엔 ‘건강’ 2023년엔 ‘경제적 어려움’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신앙’과 ‘가정’은 줄고 ‘돈’은 증가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지난해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주요 결과를 16일 소개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천 명과 비기독교인 1천 명을 대

상으로 한 것이다.

목데연은 ‘넘버즈(numbers)’라는 이름으로 매주 특정 통계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돈’이었다.

이와 관련된 한목협의 지난해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요즘 가장 큰 고민으로 ‘경제적 어려움’(3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27%), ‘자녀 문제’(1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인 2012년 조사에서는 ‘건강’이 3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19%로 그 다음이었다. ‘자녀 문제’는 11%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은 비율이 10년 사이 13% 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또 연령별로 요즘 가장 큰 고민을 파악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2순위 안에 들었고 특히 30~40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목데연은 “이는 전연령층 중에서 3040세대가 경제적 어

려움이 가장 많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건강’ 33%, ‘가정’ 18%, ‘신앙’ 17%, ‘돈’(경제적 풍요) 17% 등의 순으로 꼽았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돈’(10%→17%)과 ‘건강’(22%→33%)은 증가했지만 ‘가정’(25%→18%), ‘신앙’(25%→17%)은 줄었다. 이 밖에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란 제시문에 기독교인의 90%, 비기독교인의 92%가 동의했다. 목데연은 “두 그룹 모두 차이 없이 돈 있

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했다.

◆‘교회, 성경적 재정 원리 가르쳐야’

목데연은 “성경에는 ‘돈’, ‘재물’과 관련한 단어가 ‘사랑’보다도 4~5배가 더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다”며 “교회는 성경적 물질을 교회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 시기에 ‘돈’에 대한

성경적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많은 청소년이 물질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세상적인 성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목데연은 “교회는 돈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광주 남구, 기독교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 남구는 9월부터 지역 내 기독교 선교 유적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대상은 오웬기념관, 유일선 선교사 사택, 수피아 홀, 커티스 메모리얼 홀, 윈스브로우 홀, 수피아여자학교 소장당 등 6곳의 국내 기독교 선교 유적지다. 남구는 2021년에 국가유산청이 추진한 ‘세계유산 등재 신규 목록 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 당시 오웬기념관 등은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 목록 중 4순위로 추천받았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선교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서양의 문화가 접목되어 인간 존중과 평등을 추구한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광주 남구 양림동 유일선 선교사 사택 ©광주 남구

국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인천 성지순례길 걷고 4000원 카페 이용권 받으세요”

필수 2곳 포함 5개 관광지 방문하면 혜택

인천시는 7~11월까지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개항장 일대 종교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 성지순례길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인천의 종교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관광상품으로, 개항장 일대 종교교육역사도보 관광 코스와 연계해서 운영된다. 또 운영 성과에 따라 8월 ‘인천 성지순례길 가이드북’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인 ‘천e지’를 설치하고 회원 가입 후 ‘2024 인천 성지순례길 스탬프투어’를 선택하고 참여하면 된다. GPS 기능을 활성화하

고 관광지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탬프가 인식된다.

코스는 약 2km로 인천역-담동성당 일대의 기독교, 천주교 종교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첫 선교수녀 도착지, 제물진두 순교성지, 해안성당,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누들플랫폼, 담동성당,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으로 8개 관광지 중 필수 관광지 2곳을 포함하여 5개 관광지를 방문하면 4000원 상당의 카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완주자는 카페 이용권을 통해 개항장과 신포 일대에 있는 가맹 카페 5곳 중

한 곳을 선택방문해 지정된 베이커리와 음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상황에 따라 쿠폰 발행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김은효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스탬프투어를 계기로 인천의 종교 관광 성지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천에서도 개항장과 백령도 등 섬에 소재한 성지를 연계하여 인천의 종교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육성하겠다”고 했다.

스탬프투어의 자세한 코스와 쿠폰 등의 내용은 인천관광공사 블로그와 인천e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상환 기자

송실대 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등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을 들쭉이게 하던 시기에 독립을 향한 열망을 담은 자료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선언서 ©국가유산청

해당 자료는 1919년 10월 31일에 발행된 축하문과 선언서 두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성정부와 연해주

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해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축하문에는 김구, 박은식 등 ‘대한민족대표’ 30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오늘에 다시 독립 대한의 국민이 되었다”라는 문구로 시작

된다. 또한 이 문서에는 만세를 부르자는 노랫말이 담긴 축하기도 포함돼 있다.

선언서는 “한 번 더 평화로운 만세 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국이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임을 일본과 세계 만국 앞에 선언하노라”며 “제2차 독립시위 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오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니 우리 민족은 영원히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지라”고 하고 있다.

이 자료는 다이스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발표됐으며,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일으켜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다. 이는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자료는 1967년 김양선 교수가 송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매산(梅山) 김양선 교수는 평양송실대학 출신의 장로교 목사이자 고고학자로, 그가 설립·운영하던 한국기독교박물관을 토대로 송실대 부속박물관이 출범했다.

이번 등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운동 전개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노형구 기자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2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장)는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전모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탈북자와 그 자녀들이며,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목사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전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의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윈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 노형구 기자



‘크루즈여행 가상 체험’ 이벤트!

동반자까지 총 20명에게 프린세스 선사 초청 썬 크루즈 ‘선상 투어 및 정찬’ 기회를 드립니다!

QR로 응모하세요!

프린세스 크루즈 공식 소셜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 상세 내용 [이벤트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024년 8월 12일까지!
 선박투어 및 정찬 날짜: 2024년 8월 31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정찬 장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여행 문의 및 상담: **Tel. 02)318-1918**
 프린세스 크루즈 한국 지사 www.princesscruises.co.kr

“국가·교회·가정 회복 위해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자”

한직선·서울시청기독교연합교회, 구국금식기도회 공동 개최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 이훈 장로, 이하 한직선)와 서울시청기독교연합교회(회장 안금희 집사)가 최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 4층에서 '제22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금식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예배, 구국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이훈 장로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안금희 집사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김명진 목사(한직선 재정본부장)가 성경봉독을 했고 윤장현 목사가 '인생의 재건(느헤미야 1: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다. 조선 땅을 사랑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그의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을 통해 소식을 들은 그는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0일 만에 재건했다. 우리

나라는 캔드릭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독립운동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세상에 큰 영향력이 없으며 기독교 신도, 윤리 등이 바닥을 찌고 있고 누구나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인생의 재건은 올바른 관점에서 시작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이었다. 이방인 중에서는 출세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소식을 통해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올바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쓰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도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목사는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질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시길 바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줄은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줄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관심 없이, 소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최승연 기자

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 가난한 청년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난한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생의 재건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알고 있지만,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눈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울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

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도 슬피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우시길 바란다. 필요할 때는 우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목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무너진 국가, 교회, 가정, 나의 신앙 등을 보면서 애도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해야 한다”며 “세 번째 인생의 재건은 올바른 기도에서 나온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지킬 때 하나



윤장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다. 그는 “올바른 기도에는 간구가 들어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다. 오직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기도였다. 오늘 우리는 구국기도회로 모였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상황을 알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시길 바란다.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려시길 바란다”며 “혁명보다 힘든 게 개혁이다. 한국교회의 개혁, 직장 문화의 개혁, 가정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의 집회, 한번의 기도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목사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결성하고 함께 이뤄질 때까지 모이기에 힘써 기도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국교회, 직장 문화, 가정의 재건이라는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의 영광은 회복될 것이다. 이에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고 했다.

이어 구국기도회는 이성수 권사(한직선 기도본부장)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이훈 장로가 신앙실현 각성 운동 선포식을 했다. 이어 명진 목사(한직선 이사장)가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을 낭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김명진 목사(한직선 상임회장)가 ‘진정한 회개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김기운 목사(서울시청기독교연합교회)가 ‘공의국가, 치유회합,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박상수 장로(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가 ‘민족회합, 한국교회, 직장선교를 위한 기도’, 이재웅 목사(한국직장선교대학 학장)가 ‘환우, 개인, 가정,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회를 인도했다.

한편, 기도회는 이어 이훈 장로가 내빈 소개 및 인사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직장선교의 노래를 재창했으며 이명환 목사(한직선 지도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최승연 기자

한국YMCA 신임이사장에 신관우 부이사장 선임돼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MCA)은 최근, 신관우(65) 현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7차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회 이사회에서 이뤄졌으며, 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신관우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한국YMCA전국연맹의 1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의 창조라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청년과 기후,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한국YMCA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제주본부부회 개관했고, 세종시에 생명평화교육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신임 이사장은 (주)피엔엘 대표이사



신관우 신임이사장 ©한국YMCA

로 재직 중이며, 부산 백양로교회 사무장로, 부산CBS 운영이사장, 부산CBS재단 이사, 사단법인 대한민국의료재단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다. 또한, 부산YMCA 이사장과 재단이사장, 국제와이즈멘부산지방회 총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을 역임하며 활

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한국YMCA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47차 전국대회와 2024년 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YMCA 결성 110주년을 기념하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분절, 디지털 전환 사회 등 급변하는 환경을 진단하고, 한국YMCA 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청년과 대학 중심의 청년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불평등, AI 발전과 사회현상, 청년의 무기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듣고 분과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청년대회 결의문’을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 노형구 기자

한국VOM “투옥된 중국 기독교인, 감옥에서 복음 전도”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풀리)는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바오더 가정교회 성도인 61세의 리엔핑은 지난 2021년 3월,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작해 준 혐의로 산시성 여자 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이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인도한 사역자들에게 중국 경찰이 전행적으로 적용하는 혐의라고 한다.

한국VOM 현숙 풀리 대표는 “리 자매의 연로한 부모님은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숙 풀리 대표는 “저신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의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말한다”고 했다. 현숙 풀리 대표는 리엔핑 자매의 투옥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리 자매님의 남편 자오준단 씨는 비록 자신의 아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더 이상 많은 성경 구절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 상실이 진행됐지만 동료 수감자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리 자매의 감방 동료 중 7-8명이 이미 기독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숙 풀리 대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핍박받는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겹옷과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돌보



리엔핑(왼쪽)과 그녀의 남편(오른쪽) ©한국VOM

아 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현숙 풀리 대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의 주수가 알려지고 그들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을 때 격려 편지를 보내는 등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며 한국VOM의 이 같은 사역을 소개했다. 노형구 기자



일본 上高地 가미코치
이국적인 힐링 상책 4일
[출발 확정] 일요일 출발 7월 28일, 8월 4일, 18일

전문 인솔자가 함께하는 편안한 여행 **상품가 2,090,000원부터~**

- 8월 평균 최고 기온 23도, 도쿄보다 약 10도 낮고, 삿포로시보다도 낮은 시원한 여행!
- 대천항공 왕복 항공료(유류할증료 포함), 온천 호텔 3박(2인 1실) / 조식, 중식, 석식 제공
-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전용 차량, 가이드 경비 포함
- 하쿠산 화이트로드, 합장촌, 히다 대중유동, 가미코치, 노리쿠라 이지 트레일 등 관광
- 노리쿠라다케 자연 속 히라유 노천 온천, 시바이마 호수 전망 실외/내 온천 체험

몽골	대자연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 몽골·바이칼로 떠나는 섬 여행 / 7일 4,490,000원 ▶출발일: 총 3회 출발 [마감 임박] 9/14 *주석 연휴
베트남	미리 준비하는 추석 연휴 차별화된 베트남 여행 하롱베이 럭셔리 크루즈 / 5일 2,490,000원 ▶출발일 [출발 확정] 9/14 *주석 연휴
유럽	와인과 예술, 차별화된 일정과 감동의 향연 보르도와 남프랑스 낭만 여행 / 10일 8,990,000원 ▶출발일 (단, 1회) [출발 확정 임박] 9/27 (8박 10일)
네팔·부탄	천상의 왕국을 찾아 떠나는 미지의 땅 자연에서의 힐링 네팔, 부탄 / 9일 6,990,000원 ▶출발일 (단, 1회) [출발 확정] 9월 30일 (월)

“내게 기대어 오는 사람에게 맑음을 전해 주는 사람인가?”

창립 120주년 기념 LA연합감리교회 말씀 집회... 김기석 목사 초청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 7400 Osage Ave. LA, CA 90045)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김기석 목사를 초청해 <진리의 오름길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토)부터 14일(주일)까지 양일에 걸쳐 말씀집회를 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로마서 1-8장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중년에 이르러서 로마서 후반부가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이후 후반부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예배 핵심은 어디 있냐면,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 윤리의 기본적 핵심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나의 삶속에 부딪혀 안는 것이 흘러넘침의 윤리이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수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며, 신앙은 홀로 자립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생명은 그래요. /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릿기도 하니 /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릿기도 하지요. /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아여.

“정현종 시인이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설 수 없는게 인간의 존재이다. 우리는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 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데 이 시인의 상상력은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공기를 기대고 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맑은 하늘과 같이 상쾌한 사람이면 나 또한 저절로 마음이 맑아진다.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흐리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게 기대오는 사람에게 맑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김기석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LA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창민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은 바로 그런 것.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주는 것이고 설 땅이 되어 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기대 올 때 나로 말미암아 그가 맑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담임목회를 할 때, 밤 12시 30분에 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밤을 새우며 누군가의 임종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새벽 5시경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빈소 차리는 것을 보고 새벽 5시경에 집으로 돌아온다. 밤을 꼬박 새웠다. 저도 그때 다시 금택시를 잡아타고 오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면 내가 뭐라고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나를 떠올리고 나를 찾는, 얼마나 고마운가. 생

각해 보면, 몸은 고단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여 그의 슬픔의 순간을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 스스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경험을 나눴다.

그는 교회 안에 봉사에 열심이지만 여전히 자아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질 때는 자아가 무너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이다.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기 시작한다”며 120년의 역사를 지켜온 LA연합감리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뿌리로 염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식물은 염분이 들어 가면 죽기 때문에, 맹그로브 나무는 생

존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뿌리의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염분이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한 방어막이 해도 뚫고 들어오는 염분이 있다. 그때 맹그로브 나무는 그 염분을 물관을 통해서 특정한 나뭇잎으로 보내고, 염분을 이렇게 머금게 된 나뭇잎은 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오렌지 빛깔을 띄게 되고 더 이상 염분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툭 떨어진다. 강물 위를 떠가고 있는 그 오렌지빛 그 나뭇잎은 맹그로브 나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나뭇잎이다.”

“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不然. 그들은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 말없이 그 모순과 아픔과 갈등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 스스로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LA연합감리교회가 120년에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있는 아픔과 소름과 갈등 같은 것들을 자기 속으로 품어 하나 정화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LA연합감리교회는 1904년 3월 11일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Florence Sherman 여사가 힐스다릿에 있는 건물을 빌려 젊은 한인 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어, 이후 정동교회 출신 신홍수(1904-191)가 초대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미 최초 한인교회의 역사를 열었다.

이후 1920~40년 민찬호 목사, 한승근 목사, 황사용 목사, 장기형 목사를 거치며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독립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며, 1953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최영용 목사가 파송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며 크게 성장했다.

70~80년 새로운 이민 물결이 몰아칠 무렵, LA연합감리교회는 LAX 국제공항 근처로 이전했고 해외선교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주디 한 기자

애틀랜타신포니아,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명칭 바꾸고 새로운 발걸음

애틀랜타 신포니아가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다.

2018년 지휘자 박평강에 의해 창단된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그동안 조지아 동포 사회와 미 주류 사회에서 뜻 깊고 중요한 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음악회’, ‘9.11 테러 20주년 추모 음악회’,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 ‘애틀랜타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음악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하여 동포사회에 기념비적인

순간을 알리고 또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제공했다.

그런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이제 더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2024년부터 로렌스빌 아트 센터(125 N Clayton St, Lawrenceville, GA 30046)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에 애틀랜타 신포니아는 그 이름을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변경하고 로렌스빌 아트 센터에서 매년 정기 연주회 3-4회 그리고 솔로 및 앙상블 음악회 (11시 음악회)를 3-4회 개최할 예정이다.

음악 감독 및 지휘자 박평강 씨는 “로

렌스빌은 애틀랜타 지역에서 2번째로 오래된 전통있는 도시이자, 균형 소재지가 집결해 있는 의미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오케스트라가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로렌스빌 아트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좀 더 미 주류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설립과 떨림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3회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공연은 2024년 10월 27일(일), 2025년 1월 11일(토), 2025년 4월 12일(토)에 개최된다. 앙상블 공연은 2024년 8월 2일(금) 12시, 2024년 9월 27일(금) 11시, 2024년 11월 22일(금) 11시, 2025년 2월 21일(금요일) 11시, 2025년 3월 28일(금요일) 11시에 개최된다. 앤더슨 김 기자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모습. ©단체 측 제공

메넨데스 美상원의원, 뇌물 혐의 유죄 판결

20년 의정 경력 마감...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의 상원 진출 가능성 높아져



미국 뉴저지주 출신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미국 언론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메넨데스 의원에게 제기된 16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뇌물 수수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가와 외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교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들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에서는 55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10만 달러 상당의 금고 13개가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으며, 주택 대출금의 일부를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의혹도 받았다.

2006년부터 약 20년간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직을 수행해 온 메넨데스 의원은 기소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당내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버텼고, 심지어 무소속으로라도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정치 경력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고, 재선 도전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한국계 정치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사진)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인물로, 지난해 뉴저지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후보의 득표가 13%에 불과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김 의원의 상원 진출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남윤식 기자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11월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뉴저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메넨데스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지지표가 분산되어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판결로 메넨데스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뉴저지주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계 정치인의 연방 상원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 아시아계 정치인들의 약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윤식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남보라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관제사업인 심의(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번호)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장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위해 때 결산까지도 내부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에너지 전환 중요해”

문화비전코리아와 함께하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5)

한국지역개발협회 최경영 회장 인터뷰

현대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2020년 발간된 ‘한국 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은 대한민국의 직업 수를 1만 2,923개, 직업명은 1만 6,891개로 보고했다. 그리고 이젠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으로 직업군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기존 직업군이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빠르게 생겨나기도 하는 시대를 맞아 문화비전코리아와 본지가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군들을 조사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최경영 회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의 물순환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빗물의 효율적 순환과 활용, 탄소중립에 많은 기여 불투수성 포장면을 투수성이 우수한 포장면으로 바꿔야”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새한국지역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며 “이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경영 회장은 농학·공학박사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2050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 경기도세종사찰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최 회장과와의 인터뷰 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산불, 토네이도 등의 이상 기후성 재난으로 인명, 재산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탄소중립’이라고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소스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과 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은 정부

정책이 주도하는 것이므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면,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은 태양에너지로 통하여 바다의 물과 육지의 물을 증발시키고, 이를 우리의 주변에 떨어뜨려 준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장마기에 일시에 많은 물이 한꺼번에 떨어져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고 활용한다면 탄소중립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불투수성 포장면을 투수성이 우수한 포장면으로 바꾸어 땅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빗물 저장 시스템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저장된 빗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도시 홍수 관리와 지속 가능한 물 자원 활용을 위해 빗물 저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빗물 저장 시스템으로는 맨과 저수지를 들 수 있으며, 하천에서의 빗물 저장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에 보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우수지와 수변공원 등도 이러한 용도를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의 지하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빗물을 수집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재사용하는 구조로, 조정, 청소, 소방 등의 비음용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과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의 물 사용량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주로 산업용, 농업용, 가정용 순으로 물 사용이 많으며, 이 중 산업용 물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산업화된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물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우기와 건기로 구분될 만큼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점점 축소되어 아열대의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와 가뭄의 비헝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의 물 공급 및 정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 물은 다단계 필터링과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정화되며, 이후 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운반됩니다. 이 과정은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물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잘 처리된 물을 가정에 보내더라도 수도관에서 녹나나 찌꺼기가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의 수치 측정 실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물의 질을 측정할 때는 pH, 전도도, 용존 산소량, 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질 분석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실험을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환경 기준 또는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철저한 실험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 사항인 결합투수투수블록의 빗물 저장 효과는 어떤가요?

“결합투수투수블록은 블록의 구조 특성상 장기간 막힘 현상 없이 투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결합투수투수블록의 자체 구조에서 빗물 저장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록 하부의 잠석층에 빗물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드나 차도에 10~15cm의 잠석층을 형성하여 이중 30%의 공극에 빗물을 저장하므로, 투수포장 1제곱미터당 35~50L의 빗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운동장 3,0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350~500톤의 빗물 저장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투수블록은 시공 후 1~2년 안에 투수능력이 상실되어 빗물 저장능력도 함께 상실되므로 결합투수투수블록과 빗물 저장 효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합투수투수블록은 교통 안전사고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표면에서 물의 빠른 흡수를 가능하게 하여 도로 위의 물웅덩이 형성을 줄임으로써, 비 오는 날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눈이 왔을 때 눈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얼음으로 변하여 미끄러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녹은 빗물을 블록 하부로 이동시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입니다.”

결합투수투수블록 교체 예산 및 기존 시설의 활용을 살펴보면, 우선 설치 범위와 기술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투수블록 중 투수능력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투수블록과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교체로 인한 예산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하 빗물 저장소인 잠석층은 그대로 사용되며, 기존 블록을 교체할 때 새로운 블록 설치 시 투수 성능 지속성이 확대되어 이러한 기존 시설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됩니다.”

글 = 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장민제(제주브라운홀 아시아) 편집 = 이희희 기자



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장민제

전도편지

한국외향선교회 평택지회 25주년 “세계선교의 발판이 되자”

◇1부 한국외향선교회 평택지회 25주년 기념 예배(7월 8일 오후 14:30~3:10)

전철한 한국외향선교회 상임회장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외향선교회 7개 지부가 함께 모여 평택지회 창립 25주년의 뜻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25년 전 평택지회(김윤규 대표선교사)가 창립되었을 때, 평택항은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개척되었습니다. 당시 평택지회 상황을 잘 아시는 전철한 상임회장님과 인천지회 임성호 목사님의 모금으로 작은 컨테이너(20 Feet)를 준비하여 시작된 평택지회가 창립 25주년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말에서 평택지회는 개척 당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25년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평택지회 대표선교사로, 충주 소태그리스도의교회 목회사역, 서울기독교대학교 석박사 유학생 제지훈원 후 본국 파송 사역, 미군 사역,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역, 반포직장인배 사역,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구심 선교, 직목협 직전회장 및 교육원장, 365일 귀환라프 틈새 전도 사역, 직장선교 6대 기관 기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성경말씀 마가복음 8장 36-37절을 본문으로 ‘한 영혼의 가치’라는 설교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귀한 인생들이 모두가 타락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44절, 십자가에 달린 극약무도한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사형 집행 직전 극적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틈새의 시간에 사랑하신 한 영혼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도 인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7절, 예수님께 서는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1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용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외향선교회를 위해 △한국외향선교회 평택지회가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를 통한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고 △신임 상임회장과 함께 6개 지회가 연



김윤규 목사님 필리핀 카톨릭 선원들에게 복음 설교를 전하고 있다. ©김윤규 목사 제공

함하여 예수님의 지상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2부 세미나 (7월 8일 오후 20:30~23:30)

저녁 식사를 하러 예산 식당으로 오고 가는 시간에도 계속 목욕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세미나에서 전철한 상임회장님은 “70년도에 국내에서 외국인 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외향선원 사역이었다면, 21세기 현재 한국의 선교사역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사역 등을 겸한 글로벌 사역”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외향선교회를 떠나 외국인 선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을 간증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내지회인 인천, 평택, 군산, 광양, 부산, 포항, 동해 지회와 본부 사역자 3명이 10~15분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사역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3부 세미나 (7월 9일 오전 07:30~11:00)

인천지회 임성호 선교사의 설교와 간증 후 전철한 상임회장님이 한국외향선교회 선교사역의 체계 및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①외향선원/외국인선교 ②신학대학 유학생 선교 ③국내 이주민노동자 선교, 결혼이주다문화가정 사역입니다.

이어서 저는 365일 귀환라프 틈새 전도 사역 발표에서 귀환라프 선교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서울기독교대학교 유학생 틈새전도 사역 후 본국 파송 사역 사례를 PPT로 제시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윤규 목사 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총복지방회장 소태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평택외향선교회 대표 선교사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지도 목사/선교학 박사(Ph.D)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 85°C) 1분 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C 이하 냉동식품 -18°C 이하

“트럼프 전 대통령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분 말씀 들으십시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릎 꿇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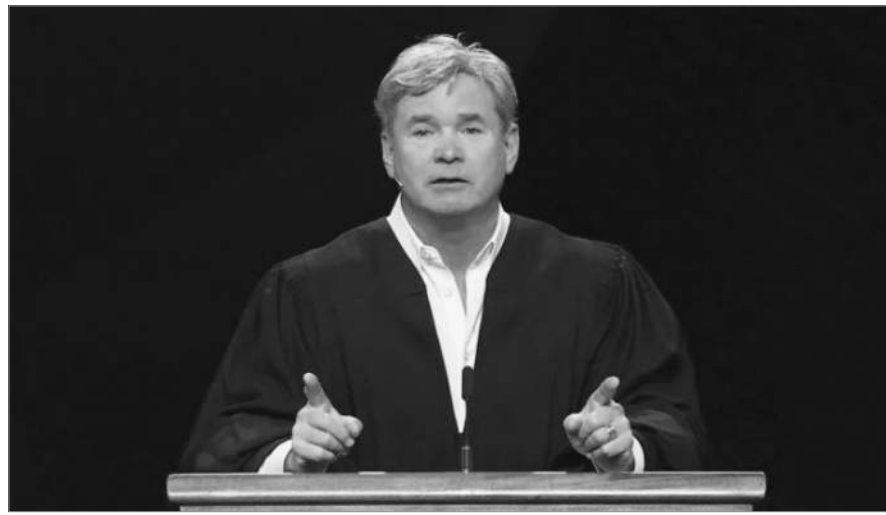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 갈보리 체플 치노힐스의 담임인 잭 히브스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음 자문 위원이기도 했다.

그는 주일설교에서 “대통령님,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귀가 피를 흘리고 있을 것이다. 총에 맞은 건 눈이 아니었다. 총에 맞은 건 코가 아니었다. 총에 맞을 예정이었던 건 관자놀이가 아니었다. 당신의 귀는 (총에) 맞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보호해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무릎을 꿇을 때”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그 분이 인간의 일을 다스리는 분이요 말할 때다. 그 분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 분은 모든 사람이 와서 영과 진리로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라. 그것은 세상에서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담임 그렉 로리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음주의자



잭 히브스 목사. ©YouTube/Real Life with Jack Hibbs

문 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CP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우리는 종종 누군가 ‘총알을 피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그의 생존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완전한 회복을 기도한다. 암살자의 총알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다 사망한 코리 콤포라토레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로리 목사는 “코리는 영웅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소방관이었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사랑했다. 우리는 중상을 입은 두 사람의 빠른 치유와 이

무의미한 정치적 폭력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담론에서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적대감’과 선험적인 수사를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존재적 위협으로 낙인찍고 히틀러와 비교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선동적인 수사를 줄이고 미국인이 투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트럼프 총격 사건 후 바이든 “어떤 폭력도 허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수사를 재설정하자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진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가 없다. 어떤 폭력도, 그 어떤 폭력도, 그 순간도 예외는 없다”라며 “우리는 폭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나라의 정치적 수사는 매우 격렬해졌다. 이제 진정할 때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우리는 강한 의견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위험은 엄청나게 높다. 여러 번 말했듯이, 이번 선거에서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은영혼을 다해 그것을 믿는다. 제 동료 미국인 수백만 명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다.

복음주의의 평론가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쯤 정말로 성찰할 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증오와 폭력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유세 중 암살 시도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X 캡처

가 게시하는 믿음으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조정하고 있는가? 무슨 목적을 위해?”라고 물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 분열의 깊이 이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국가적 통합을 향한 쉬운 길도 없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공유하는 게시물, 만드는 밈, 우리가 형성하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좋다. 경건한 신념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사악한 증오를 키우고 있는가? 용기와 강인함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 말이 적대감과 경멸로 이어지는가?”라고 했다.

남침례신학교 앨버트 몰러 총장은 “이런 종류의 공격은 우리의 전체 정치 시스템과 질서 있는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한 공격이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하나님만이 목숨을 구해주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지만 “하나님만이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20세 백인 남성이 그를 암살하려 했고 총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펜실베이니아주 베벌파크 출신인 20세 토마스 매튜 크록스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유세 참석자 중 한명이 사망했고 두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

망자는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조지 시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언론브리핑에서 사망자가 이 지역의 전 의용소방대장이었던 코리 콤포라토레(60)라고 밝혔다. 콤포라토레의 딸 엘리슨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날아온 총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주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진짜 총알을 맞을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이 중상을 입힌 두 명은 펜실베이니아 주 뉴캐슬 출신 데이비드 더치

(67)와 펜실베이니아 주 문 타운십 출신 제임스 코펜하버(74)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됐다.

총격 사건 다음 날인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메시지를 공유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과 콤포라토레의 가족과 부상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어 감사하다고 표명했다.

그는 “어제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

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신앙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악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상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민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한다”라며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의 진정한 폭력을 보여주고 악에게 승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그는 “나는 진정 조국과 국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이번 주 위스콘신에서 위대한 국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5명 중 1명은 트럼프 피격 후 정치폭력·혼란 우려 여론조사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응답자 84%가 공포 느껴 특히 “대선 후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 테러” 등 우려

미국인 5명 가운데 4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암살기도 총격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치폭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견딜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현지시간) 발표되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유권자들

가운데 약 84%가 11월 대선이 끝난 뒤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행위를 저지르 것이 걱정된다고 답해 5월에 실시한 이전 조사의 74%보다 더 악화된 반응을 보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에서 총격을 받고 가까스로 암살을 모면했다.

이 총격 사건은 대통령 선거가 석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모든 뉴스 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되어 큰 경보를 울렸으며 전국적으로 정치적 충격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의 약 80%는 “미국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고 여기고 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지른 폭력을 용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5%로, 2023년 같은 여론조사 때의 12%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보다 43%대 41%로 근소하게 앞서 있었다.

로이터는 여론조사 후 발표에서 트럼프 후보의 생명을 노린 총격사건이 아직은 유권자들의 관심의 큰 변동에 불이 붙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여론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적으로 1202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가운데 992명은 등록된 유권자들이다. 차미레 기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N°20 건강한 인사법

GOOD

목례로 인사

BAD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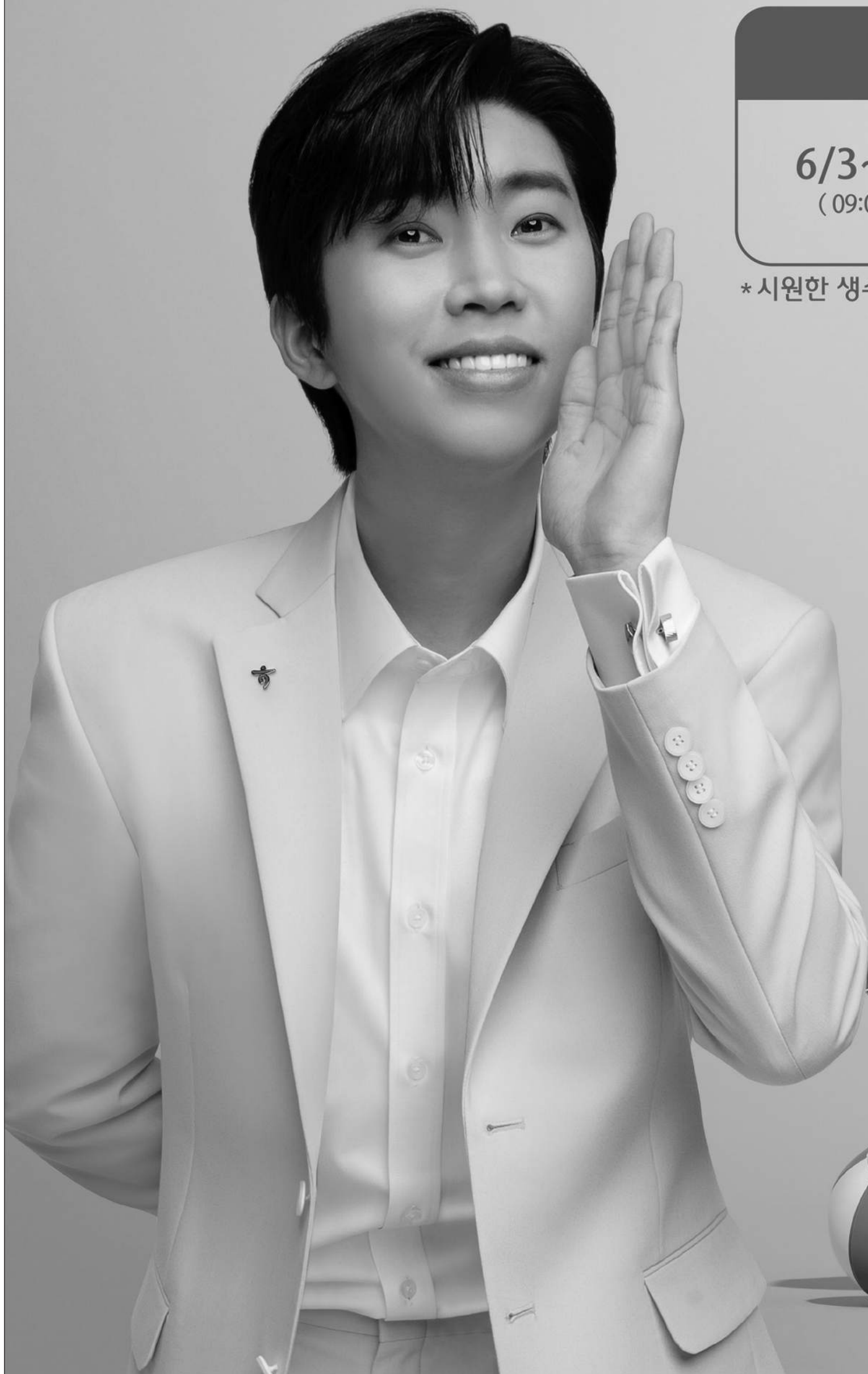


시원한 하나은행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하나은행 무더위 쉼터

6/3~9/30까지 (09:00~16:00 운영)	전국 563개 영업점 (일부 출장소 및 골드클럽 제외)
--------------------------------	-----------------------------------

*시원한 생수도 무료 제공됩니다



국힘, 민주당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대상... "의회 독재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7월 임시회 본회의에 대비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공시했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주목되었다. 이들 법

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이용해 해당 법안들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에 따라 의원들이 원내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방송 4법이 지금 광장히 크니까 어찌 보

면 앞으로 계속 비상 대기해야 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며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국회를 지켜달라, 필리버스터를 많이 지원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하지만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행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의결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하며, "날마다 위험 요소가 가득한 새로운 썬슈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위헌입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상습적인 헌정유린, 헌법정신 존중하라' 등의 구

호를 외치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18일, 25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상정(예고)되고 있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라 우리는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의 대응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된다. 앞으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임시국회의 운영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 공식 제안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목표... "22대 국회, 개헌 성사시키는 국회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처겠다는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에 대해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

을 추진하자"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개헌의 방식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을 제안했다.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

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발언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의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용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트럼프 러닝메이트 JD 밴스,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로 유럽 우려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JD 밴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사진)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목하면서 유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BBC가 16일 보도했다. 밴스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 왔지만, 밴스의원의 부통령 후보 낙점이라는 돌발변수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밴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는 미국의 610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 과정에 이를 지연하고 반대했으며, 올해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안보 의제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의명의 외교관은 "유럽연합(EU)이 폭풍에 대비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유럽의 불안한 상황을 묘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두렵지 않으며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공화당 대다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친분을 통해 미국 정권 교체 후에도 폴라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밴스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있다. 유럽에서는 밴스 의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 내부의 전쟁 회의론도 우크라이나에 부담이 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회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에우엔 마흐다 세계정책연구소(IWP) 수석책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미·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로 기소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인 수미 테리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사진)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욕 연방검찰이 16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테리는 고급 만찬과 명품 핸드백을 대가로 한국 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출연하고, 2014년 NYT 오피니언 기고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 언론에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하는 글을 썼다. 그는 또한 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증언했는데, 이 증언에 앞서 등록된 외국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에 서명했다.

NYT가 소개한 링크드인 프로필에 따르면, 테리는 2001년 CIA의 동아시아 분석가로 미국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회의(NSC)의 일본, 한국, 해양 담당 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동아시아 국가정보국 부국장을 거쳐 2010년 공직을 떠나 싱크탱크에서 일했다. 남윤식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이 17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제정안 심의에 출석하며 "엄중한 시기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 가졌던 비전과 소신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임명제정안 심의를 열고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았다. 심의는 재직 위원 7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경찰청장 인선 절차는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이 임명할 수 있다. 조 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민갑룡, 김창룡, 윤희근 청장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경찰대 출신이 차관총수를 맡게 된다. 현직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는 8월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다.

1968년 경북 청송 출생인 조 청장은 경찰대 행정학과를 6기로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경찰청 차안상황관리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국 기자

PRUGIO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 서초구 | 강남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백운호수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청계C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액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365일 식사서비스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하우스키핑 서비스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메디컬케어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올데이 클래스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총 536세대 1577-5052

생치자 겸 양육인 M+ 엠디엠플러스 | 대리사무실 KAIT 한국자산신탁 | 서울 대우건설

※상기 CG 및 이미지는 소버라이드 이미지를 동기화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및 색채계획, 정호계획은 인허가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프로그램은 노후주택에 예정된 시점으로 실제 운영 시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유선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 사업자의 입자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 공공계획 및 예정사업은 주위 환경에 따라 지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세상지 결정에 따라 신도시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공의 복귀율 여전히 저조, 1만 명 이상 사직 처리 예상

정부, 전공의 없는 병원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 나서

정부의 전공의 사직 처리 지지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756명 중 8.4%인 1157명에 불과했다. 레지던트만 놓고 보면 1만506명 중 1047명(10.0%)만이 출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통보한 이후, 출근 인원은 6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직 처리 마감 시간인 15일과 비교해서는 단 2명만 늘었다. 이 수치에는 당직 휴무자와 연차 휴가 사용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미복귀 전공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직한 전공의 수는 하루 사이 1000명 이상 급증했다.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302명(12.4%)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일 기준 86명에서 하루 만에 1216명이 늘어난 수치다.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레지던트 9992명 중 1282명(사직률 12.8%)이 사직했으며, 15일 대비 1207명이 증가했다. 특히 백5 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38.1%(1992명 중 732명)로 하루 새 716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 앞에 전공의 파업 등의 사태로 인한 입원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집 인원 신청 마감일인 17일을 기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추가로 사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수련병원들은 이미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합의서를 발송하거나

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련병원들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사직 규모가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응시하도록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일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자질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전공

의 없는' 병원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증 환자는 중소형 병원으로 유도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위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병실을 최대 15% 줄이는 방안을 검

토 중이다. 또한 중소형 병원 이용 환자가 병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대기 없이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공의 빈자리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으로 채울 전망이다. 정부는 간호사법을 개정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현재 1만 여명인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법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9월 하반기 수련을 선택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개원하거나 봉직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이 채워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나래 기자

세브란스병원, 선천성 심장병 앓던 필리핀 소년 성공적 치료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프로그램 통해 한국 초청... JYP엔터테인먼트 수술팀 전액 후원

세브란스병원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던 필리핀 7세 소년 킴(KIM ABIBG ROSELLO)을 한국으로 초청해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치료는 세브란스병원의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술 비용 전액은 JYP엔터테인먼트가 후원했다.

킴은 태어날 때부터 '팔로 네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 질환은 심장 내 두 개의 심실 사이에 큰 결손이 있으면서 심장에서 폐로 연결된 폐

동맥에 협착이 동반되는 심각한 심장 기형이다. 이로 인해 킴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어려웠고, 얼굴과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친구들과 놀다가도 쭈그려 앉아 몸을 웅크리는 등 심장에 혈액을 보내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킴은 연세대 의대 출신의 A 선교사(심장혈관외과 전문의)의 의료선교 봉사를 통해 세브란스병원과 연결되었다. 이후 세브

란스병원은 킴을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세브란스병원 신유림 심장혈관외과 교수는 킴의 심장에 있던 심실중격결손을 막고 폐 혈액 순환을 위해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수술 결과 킴의 혈장 산소포화도는 기존 50~70%에서 99%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수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신 교수는 "수술을 잘 견뎌주고 이제 밝은 얼굴로 장난을 치는 킴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세브란스병원의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를 통

해 더 많은 해외 환아들을 치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술 비용 전액은 JYP엔터테인먼트가 후원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국내외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를 위해 연세의료원에 5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프로

그램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의료 취약국 환아들을 국내로 초청해 치료하는 세브란스병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킴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는 국제 의료 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해외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선교센터 박진우 소장이 필리핀 환아 킴에게 선물을 주고 격려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둘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셋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부여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의무화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정보보안센터(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이용자 자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나래 기자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 사법 리스크 증가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사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배

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카카오는 사상 첫 총수 구속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카카오가 최근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직사업 전면 쇠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3월 정신아 전 카카오 벤처스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요 계열사 대표도 교체하는 등 경영진 쇠퇴를 단행했다. 또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를 통해 계열사 준법윤리

경영을 지원하는 등 경영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 카카오는 최근 AI 전담조직 '카나리'를 신설하고,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플랫폼과 AI,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와 합작법인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 위기로 인해 이러한 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 법인이 이번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자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검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의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60회(23g x 10회 x 6)

동아보검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요한복음(61) '엇갈린 반응'

본문: 요11:45-57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분열의 골이 너무 깊다. 우리 사회는 아예 분열이 고질병 된 것 같다. 본문에도 심각하게 분열된 고질병 증세가 나타난다. 늘 그랬듯이 기적의 결과는 분열,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앙의 반응

사도 요한은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45절). 나사로 부활 현장에 있던 유대인의 일부지만 요한은 그들의 수가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에게 와서"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야기의 중심이 마르다였다. 그런데 여기 찾아온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왔다고 한다. 사도 요한은 31절과 33절에서도 위로하며 울던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관련된 것으로 서술한다. 아마 유대인들의 동정심이 동적인 마르다보다 정적인 마리아에게 더 집중되었던 것 같다. 마리아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더 감정적이라 마르다보다 더 안쓰러웠을 수 있다.

여하튼 목격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결실이 생겼다. 본문에서 '그를 믿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순수한 신뢰를 뜻한다.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들의 신앙이 고차원적 신앙은 아니지만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언제부터인가 선거 때마다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비호감 후보를 절대 찍지 말자는 거다. 그래서 피차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비호감 문제에 집중한다. 고정관념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만일 고정관념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복음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신앙의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은 유독 범죄자 후보가 많은 선거였다. 699명 출마자 중 34.6%, 무려 242명이 전과자였고, 무려 전과 11번도 있었다. 70년 헌정사상 처음 보는 선

거, 악이 선을 농락하며 범죄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한 마디로 '파렴치 선거'였다. 사학자 윌 듀란트(Will Durant)는 자신의 저서 『문명 이야기』(The History of Civilization)에서 "국민의 도덕 수준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면 그 국가가 이룬 문명은 필연적으로 퇴보한다"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도덕적 타락'이었다고 했다. 외부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부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가 양심을 '마음속의 거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은커녕 너무 뻔뻔한 모습,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다. 부도덕한 행적으로 지탄을 받고도 태연자약(泰然自若), 과거에는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 전력 하나만 드러나도 낙마했는데 전과 3범과 전과 4범이 당 대표로 활개친다. 결국 금배지까지 달고 자신들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다. '마음속 거울'이 깨진 시대,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문제는 국민들 양심도 무너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다. 죄 사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사로의 부활 현장이 될 수 없다.

◆불신앙의 반응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부활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밀고한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나라"(46절), 고자질하는 쫓아들이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최고 회의가 소집됐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47절), 원래 대제사장은 1명 종신직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편법으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 했다. 원수기간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의기투합한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 백성들이 흑사라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들어 임금으로 삼고 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알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과 손을 잡는다.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스승을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분노하며 사람 죽일 권위가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편을 먹는다. 정말 거북하고 선량해 보이는 교활한 사람들이다. 4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항상 예수님의 적수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수난 때에는 바리새파를 직접적으로 관련짓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뒤에 숨어서 조종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엄청난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다. 죽음이 당연하고 현실이라고 믿는 자들은 새롭게 열린 부활의 세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그들의 한계다.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은 현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가진 욕망과 편견, 그리고 집착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진리를 담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함 2:4)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반성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래야 생명이 주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평화가 주어진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나 부활 사건을 이생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교리나 전통으로 막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해관계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그래서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는 태도다.

결국 대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과 힘을 합한다. 공식적인 산헤드린 회의는 아니지만 임시 공회가 소집된다. 결의 사항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63절), 최고의 기적이 행해진 그 말부터, 그 엄청난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결정타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완고한 저항 이랄까?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

람들이라 확실한 기적을 아무리 반복하며 보여줘도 소용 없다. 감동과 변화는커녕 그들에게는 그저 적개심만 더 커질 뿐이었다.

◆가야바의 반응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반응을 특별하게 다뤘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49절),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다. 레온 모리스(Leon Lamb Morris)는 사도 요한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해가 운명의 해, '온 세상의 구원이 성취된 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 했다.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하던 가야바, 그는 사두까파에 속한 자로서 아주 교만하고 모략적 지혜가 많은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의 악연, 그는 공회 수장으로서 겐세마

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을 심문하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 사형을 집행되도록 하는 데까지의 모든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다. 한 마디로 예수님 살해 음모의 주동자다.

그러나 그가 지금 떨고 있다(47-48절).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이 두렵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배리, 불변, 허구가 다 밝혀질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 기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인들이 반란의 징조로 여겨 자신들을 문책하고 유대 나라를 더 강하게 탄압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민중을 선동하는 혁명가, 정치범으로 몰아 체포하기로 결의한다. 전형적인 정치논리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해 음모를 주동한 가야바는 더 나아가 예수님 사형 판결자가 된다. 전임 대제사장이자 당시 유대의 영향력있는 실권자였던 안나스로 하여금 먼저 심문하게 한 후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송되었을 때 거짓증인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해 사형을 판결한다. 원래는 당

일 재판에서 사형판결까지는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형을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의 최고 행정기관이자 사법기관의 재판 소이기는 해도 사형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송한다.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바로 가야바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50절),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만 제거하면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밖으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고, 거꾸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에 망하는 결과를 빚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쓸데없이 되었다. 요한 복음이 쓰여질 당시인 AD 90년에는 그도 공회원들도 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사2), "하늘에 계신 이가 옷으심으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사2:4), 헛된 일, 비웃을 일이라 했다. 너무 어리석은 거다.

가야바가 귀찮은 말썽장이를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음모로 한 말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일을 예언하는 꼴이 되었다. 전문용어로 '쓰임 받은 것' 가야바가 무심코 진리를 발설한 셈이다. 예수님이 12장에서 하신 '죽는 밀알'과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예수님이 유대인은 물론 온 인류,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61-62절), 그러나 정작 이 말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가야바는 옳은 말을 했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말을 한 꼴이다.

그러서 쓰임 받는다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들어 쓰실 수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을 사용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발람에게 경고하시려고 그의 나귀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진흙과 침도 사용하셨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 가롯유다도 쓰임 받았다.

혹시 쓰임 받고 있나?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면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왜 쓰시지는지를 아는 것이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핵심은 마음이고, 믿음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알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문제는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실 때다. 그건 안심할 수 없다. 쓰임받고도 외면당할 수 있다(마7:22-23). 그래서 사역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한다.

예수님은 긴급하게 제자들과 함께 예브라임으로 가신다(64절). 예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아무도 귀찮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 예수님은 그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고 했다. 원래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는 더욱 뜨겁게 뭉치는 법,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결속력을 다지셨던 모양이다.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한다. 절기를 언급하는 것은 요한이 즐기는 습관인데 참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들은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던 바로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56절),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쉬지 않고 미행하여"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며 급변 명절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못된 사람들, 요한은 이런 반응을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체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 했다(57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하고, 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고, 지혜로운 능력을 보이고도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요셉이 때가 되자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아야 한다. 결국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살린다. 그때 요셉은 "근심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창45:5,7),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창50:20)라고 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근에 대비하여 미리 보낸 것, 그래서 요셉은 좁은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함2:4),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프 신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참 부흥을 맛보고 있는가?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구원은 골고대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대속적 공로를 믿기만 하면 얻습니다. 다른 어떤 자격, 조건, 공적,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본인 단 둘만의 인격적 체험적 대면을 통해 자기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을 얻었는지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 삼자가 개입,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구원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영과 영이 은밀히 교통하는 영역에서 이뤄지는 구원이기에 간혹 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경우의 아주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그에게 합당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발달되지 않아서 부자들이 보화를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혹 보화의 주인이 묻어둔 채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 법은 밭의 소유주가 그 보물도 소유하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밭 주인에게 비밀로 했다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 밭을 사신 보화도 함께 차지할 것입니다.

논외(論外)의 이야기지만, 농부가 밭의 원주인에게 보화를 발견한 것을 밝혀야 함에도 숨겼기에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불의한 예를 들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유에선 강조코자 하는 한두 가지 초점만 찾으면 되지 관련되는 걸가지 전부를 해석 적용해선 안 됩니다. 주님도 천국은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만큼 소중하다는 진리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실감나게 쉽게 알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구원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신자는 종교적 행사에 모두 팔아서 바쳐야 한다고 오해해선 더더욱 안 됩니다. 구원은 분명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자의 모든 것과

맞바꾸어도 될 만큼 최고로 값진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구원 이후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의 죽음과 연관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밭의 보물을 소유한 즉, 구원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진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어야 할 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로 찌든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지금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기에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시면 죽고, 살려면 살 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진짜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일 따릅니다.

또 다시 종교적 헌신을 강요한다고만 오해해선 안 됩니다. 이미 한 번 죽었던 자인자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육신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이 기다린다는 확고한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최소한 감사해 하거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랑과 죄악과 사단의 어떤 시험과 훼방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로 다시 산데다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 확실한데 세상의 악함과 추함에 더 이상 굴복될 이유라곤 없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필 필요 살아 있더라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 그곳에 임할 영광스런 모습을 그리며 이 땅의 흑암의 세력에 힘써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언제 어디서나 신자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영적 실재(實在)가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며 추하다고 그저 하염없이 비탄에 젖어있어선 안 됩니다. 신자?날마다 죽어야 함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옛 자가 죽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수가 솟지 않기에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철저한 회개만으로 그치는 것은 주님이 정작 바라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악한 것과 맞서서 싸

워 이기고 나아가 선을 적극적 자발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결국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란 이 땅에서 죽음보다 더 큰 승리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내가 사는 주위에 풍성하게 심어 나가야 합니다. 신자가 의를 행하는 것이 단지 죽음 후를 대비해 하늘에 공로를 저축하려는 목적어선 안 됩니다. 천국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의 무일뿐입니다. 거기다 면류관이 이미 확실히 예비 되어 있기에 구태여 신경 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신자는 단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통해 다른 이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됩니다. 자비, 긍휼, 용서, 은유, 인내, 경건, 정의, 진리, 평강, 자유, 소망, 사랑 등이 모든 인간관계와 일들을 이끌고 결말짓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재물, 권세, 명예, 체면, 위신, 기본, 자존심을 세우며 사는 인생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는 비록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해도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천국의 향기를 어렵잖이 맡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신자 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로 그분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분, 자격, 능력, 위격 등에서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까지는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름 받아 공짜로 영생을 얻은 이유입니다. 진짜로 그분에 대신에 생명을 맡바꾸었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면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5:14,15)

바울 사도는 지금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어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신자를 강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의무로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상의 사형수도 왕이 사면해주면 그 왕을 위해 여생을 바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데다 천국의 영광을 보장해 놓았는데 어찌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가 얼마 되지 않는 밭값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서 수만 금의 보화와 바꿀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쟁취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밭의 보물을 발견한 순간 이미 구원은 확보된 것입니다. 제 삼자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눈치챌 수도 없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밀한 언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보화의 발견은 세상 사람에겐 감춰진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앞에 항복한 순간을 뜻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며 또 앞으로 덧밧게 될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엄청난을 확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 이후의 삶은 그 보화를 땅에서 파내어서 집 안에 두고 갈고 닦고 감상하며 지내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폭 파묻혀 지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세상의 어떤 것이나 혹은 전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란 없게 됩니다. 정말로 죽음을 초월해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과 동일한 생각, 말, 행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분명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가진 세상 보화를 더 늘리고 하늘의 보화를 팔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너무 상급고 허전하고 초라한 것 같아 신나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거룩과 의로 덧밧히지는 새 사람이 될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옛 사람이 감정에 겨워 잠시 기뻐했던 것뿐이었고 이제 다시 깨워 일으켜 자꾸 살찌우려 합니다. 죽음을 초월해 사람과 죄악과 사단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게, 세상 사랑과 함께 넓고 안락한 길을 가고 싶느라 너무 비만해져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전후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은 안 계신데도 종교적 활동 때문에 함께 하신 것 같이 여깁니다. 참 생수라곤 찾을 수 없는 사막 안에서 주님의 신기루를 보고 있을, 아니 스스로 신기루를 만들어 내고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옛 사람의 죽음은 요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너무나 값싼 복음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묻힌 보화가 얼마나 값진지, 심지어 파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는커녕 지극히 작은 죄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지라 새 사람으로서 자기 주위에 천국을 실현하는 일의 진척이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악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로운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 권세가 내 옛 사람을 죽이고 주님 닮게 들만큼 충분히 크기에 죄와 사단과 사망 앞에 맞서 싸우고는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부흥을 수치로 가능하는 이상 복음의 바겐세일은 계속 행해질 것입니다. 해당 목회자와 교인들은 신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담판입니다. 거

기다 어떤 실제적 승리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죽음을 초월할 때만이 교회나 신자 개인의 참 부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지요?

분신(焚身)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분신자살(焚身自殺)이란 자기 몸을 불을 붙여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4년 3월 초 민주주의 분신이며 기독교를 국교와 같이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미국에서 현역 군인이 분신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더 이상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을 감행했습니다. 공군 현역 병사가 명분 없는 가자지구 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면서 분신자살을 한 것입니다.

25세인 이 병사는 자기가 분신하는 전 과정을 자신의 모바일 폰으로 생중계 하면서 자신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은 미국

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2.2%인 650만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과 주요 매스컴 등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하마스의 전쟁은 먼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여 1200여 명의 무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일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현재 무차별한 폭격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 박멸하기까지 결코 작전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죄 없는 어린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 등 민간인들이 현재 보고된 바와는 2만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고 있는 가족과 아파트,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모스크(무슬림들의 예배당)까지 무차별하게 파괴함으로써 전체 아랍권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도 아랍 사람들 즉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거의 매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분신자살은 이렇게 잔인하게 포격을 퍼붓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 항거입니다. 그러나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용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든 남을 죽이든 그것은 살인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남을 죽이는 살인과 자살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죽지 않을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에서 노동운 하던 전태일 씨가 근로 기준법 준수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부르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한 마지막 항거 방법이 분신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자살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가 선생인 예수님을 팔고 30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배반자라는 고성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성전 헌금함에 던진 후, 나가서 자기의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살림.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LX 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 유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가?

신성욱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2017년 12월 2일, 호습기 문제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 간 R. C. 스프로울(R. C. Sproul)이란 저명한 기독교 인사가 있다. 그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계를 선두에서 이끈 저명한 신학자이자 저술가요 목회자로서, 딱딱하게 들리는 성경 교리를 명쾌한 논리와 적절한 예화로 풀어내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

믿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읽고 확신을 가진 후 또 다시 '왜?'라고 질문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걸까?' 그는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철학자의 책을 섭렵했다.

류 채널에서 말씀을 전했다. 평생 각종 강연과 콘퍼런스, 방송과 저술 활동으로 교회를 섬겼다. 1994년 「크리스천리티투데이」 비평가들이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 3위로 선정되었고, 2017년 소천할 때까지 약 90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리고너 선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 진리를 알리려고 노력했던 최고의 신앙 인물 중 한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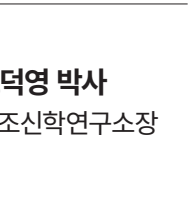
초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된 것이다'란 뜻이다.

하는 창조론만 믿어버리면 그 우수한 머리로 감탄을 거듭하면서 쓸 기독교 명저들이 많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신봉하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유가 뭘까?

하지만 방바닥에 기어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의 통제는 기쁨이요 축복이 아니던가!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내 맘대로의 자유의지라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통제와 제한이 계속 필요함을 절감해야 한다.

정신분석심리학자 칼 융과 기독교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칼 구스타프 융은 누구인가
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바젤 태생의 정신의학자이자 정신 분석학자였다. 스위스 동북부 투르가우 주 케셀빌 마을에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모교 바젤 대학과 취리히 대학 의학부 정신의학 교수를 지냈으며, 처음에는 정신 분열증을 연구하다가 점차 정신 분석학에 흥미를 갖게 된다.

대 회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성욕중심설을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인간 내면의 무의식의 심층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심리학설을 수립하였다. 그 뒤 프로이트의 범성설에 반기를 든 그는 분석적 심리학, 복합 심리학 등의 독자적인 심리학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연상 검사, 내향형, 외향형, 집단 무의식, 꿈과 상징의 연구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ürich)의 심리학 교수, 바젤 대학교의 의학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비교적 장수하면서 「무의식의 심리」, 「심리학과 종교」(인격의 완성) 등의 여러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실질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 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나는 신앙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고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용의 사상에 의하면 교리와 개인적인 종교체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 그 연관 관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에 익숙해진다.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였다. 융은 서구 문화의 발달에는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신앙 교리에 대한 그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말을 그의 사상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은 단지 선이 조금 많으신 분일 뿐이다. 그것도 그저 그분은 자신의 체험 안에서만이 해석된다. 결국 과학과 경험을 중요시 하는 융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교 체험안으로 모시기에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두 벌의 옷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뜻있 치마를 벗기시곤 가족옷을 지어 입히셨습
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
여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
절)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이 가족옷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 곧 계시의 신앙
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가족이든 한 장의 가족
이 생산되려면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족
옷은 피 흘려 죽은 짐승이 있었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옷입니다. 이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구원 역사의 기본을 일러 줍니
다. 그래서 나뭇잎 옷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구
원이 길이요, 가족옷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
원의 길 즉 복음을 말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 이야기의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과
어둠의 옷, 정욕의 옷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 날
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로 하여금 회심하게 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
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
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14절)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요, 어둠의 옷은
정욕의 옷입니다. 어둠의 옷, 정욕의 옷을 벗어버
리고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 입는 것
이 회개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옷은 요한계시록 3장과 7장에 나오
는 흰 옷과 다림질된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서 이르기를 사데 교회에 그 옷을
다림질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
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기는 자요, 그 이
름이 생명의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요
한계시록 7장에는 천국에는 모두가 흰 옷을 입
고 있는데 그 흰 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 회개 된 옷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허물도 더
러한 삶을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변화
여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두 벌의 옷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여 입을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합니
다.

성경에는 옷 두 벌에 대한 이야기가 세 차례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에 나오는 무
화과 나뭇잎 옷과 가족옷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의 명을 어
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무화과나무 잎으
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
라” (창세기 3장 7절)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나뭇잎 치마는
인류 최초의 패션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옷에 담
긴 의미를 살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종교, 도덕,
사상이라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

社 說

북한,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
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탈북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탈북민의 날’ 기념사
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
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
다. 이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가장 기본 책무란 점을 다시한번 대내외에
각인시킨 것이라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란 건 오래
전에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거리가 있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분단 이
후 오고 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체제에 사는 사람
을 동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법적으로 같
은 신분이란 인식은 피부에 와닿지 않은 측면이 있
다.

그렇다고 국민 동질성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나서 강요할 성질은 아니다. 사회 저변에 자연스럽
게 스며들어 뿌리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탈북민
들 앞에서 이 점을 다시 명확히 짚었다는 건 국민
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보편
적 정서로 느끼는 거리감까지 없애는 데까지 신경
쓰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확고한 의지를 밝혀도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일회성 다짐으로 그치거나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
용을 확대하고 탈북민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세부적인 지원
책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이 장황한 수사(修
辭)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점을 분명히 했다.

‘탈북민의 날’의 법적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는 ‘탈
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게 돌
아간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탈북민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지 14년만에 탈북민들
의 정착 자립에 장애 요소가 된 걸림돌이 이제 비
로소 치워지게 될지가 관심사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유독 가
슴에 와 박히는 대목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

라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한 부분이다.

대통령으로서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건 역대 그 어느 대
통령도 반복적으로 한 다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자
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
다”고 말한 건 시사하는 지점이 다르다. 북한 김정
은에 굴종하는 자세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와의 차
별화를 시도한 동시에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
했다. 탈북한 어린이 강제 북송한 사건은 당시 문
정부의 정체성이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독재자에 비
위를 맞추는 데 치우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문 정부는 입은 평화를 말하면서 자유와 평화,
생존을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철저히
김씨 3부자 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유를 찾아
탈북한 국민을 향해 ‘배신자’라 고함치고 “북으로
돌아가라”는 막말을 퍼부은 것도 그리 놀라운 일
이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감시통제역으로 외부 정보 유입
을 차단하면서 이를 어기는 주민을 무자비하게 처
형하고 있다. 중국에 건너온 탈북민의 입에서 ‘남조
선이 ‘한국인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도
의 폐쇄적인 체제에서 북한 주민은 노예와 가축 신
분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건 한미
군사동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라
고 입을 모은다. 한류 콘텐츠가 북한 사회에 유입
되면서 한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
날까 봐 겁먹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USB에 담긴 한국노래를 들은 중학
생을 공개 총살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런 무자비하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은 북한 체제가
갈 데까지 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처형하고 휴전선 일
대에 장벽을 치고 지뢰를 매설한다고 자유와 생존
의 본능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은 3만4천여 명
에 이른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폭정이 심화할수
록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
은 통일을 멀리 있는 ‘신기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
나 북한 주민은 통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와 인권, 생존을 위한 탈북이 이어지면 전쟁 없
이 통일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와 사
회, 한국교회가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나이키의 브랜드 디자이너



서병재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거의 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요점은 어
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 어
떻게 남을 도와서 그들도 창조적이 되게 하는
가였다. 저자는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전문가사
로 활약하고 있다.

호프만의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가 백인이
었는데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란 곳이 워낙 이민자가 많다 보니 일반적인 일
같다. 아꼈던 그래서 그런지 나이키의 모델들을
보면 거의 흑인이나 남미계인 사람들이 보

나는 최근에 나이키(Nike) 디자이너 그레그
호프만(Greg Hoffman)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Emotion by Design'(Copyright 2022). 이 책은

게 되며, 특히 운동과 관계된 브랜드이니 흑백
으로 처리되어 강력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어
찌든 그 자신의 그런 배경(아프리카계 미국인)
이 나이키 브랜드에 강점을 주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다. 더구나 70-80년대 흑인선수들이 축구,
야구에 인기 있었던 시절이라 Nike 이미지에는
흑인 선수들이 모델들로 자연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호프만은 어릴적에 학교 교사와 미국인
양부모에게서, “나는 위대한 예술가이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그
리는 학원에도 갔고, 또 그림 그리는 가정교사
도 집에 종종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이다.

내 나름대로 그레그 호프만의 성공한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해본다면, 우선 초등학교 때 부
모의 격려, 또 대학교 때 지도교수의 격려, 그리
고 친구의 격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아프리카계 미국
인)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극대화시킨 것이 그
방면에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시기와 타이밍도 한몫한 것 같다. 즉 시기적으
로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에 사람들에게 충족
을 준 것 같다. 수요와 공급이 맞은 경우라고
보겠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성공비결(창조적이 되
는 과정)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주
력한 것이 성공의 극치라고도 보인다. 어떤 사
람들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비결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그저 주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그러
나 그레그 호프만의 경우는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성공을 더 장기적이 되도록 만든
것 같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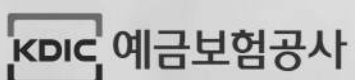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서울시, 파르나스호텔 가구·가전 취약계층 전달

새단장을 앞둔 서울의 한 특급호텔의 가구와 생활가전이 쪽방상당소, 복지시설,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돼 새 숨을 얻고 재활용된다.

서울시는 파르나스호텔(강남구 삼성동)로부터 새 단장으로 교체 예정인 침대의자·TV 등 약 1만 2천점, 3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증받겠다고 밝혔다. 물품은 오는 22일(월)까지 필요한 시설과 가정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파르나스호텔은 객실 650실, 연회장, 웨딩홀,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어 온 TV 693점, 소형 냉

장고 550점, 침대 900여점, 테이블류 2400점, 의자류 1957점 등 총 1만1791점에 상당하는 물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물품은 쪽방상당소 5개소, 아동·노숙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6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주거복지센터 6개소 등 서울시내 총 84개 기관과 임대주택 18가구에 전달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쪽방상당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호텔 기부 물품이

꼭 필요한 기관과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사전 신청받았다.

기초수급대상자로 침대가 필요했던 가구, 오랜 기간 여관고시원 등에 살다 최근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생활용품이 모두 새롭게 장만해야 하는 가구 등에 전달된다.

한편 지난 2015년 '호텔 교체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현재 시내 14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과 가정에 물품을 후원하는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시는 시내 특급호텔 새 단장할 때 나오는 생활용품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임대주택 등에 지원돼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원 순환에도 기여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만큼 호텔 교체 후원물품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그동안 잘 활용·관리해 온 가전, 가구를 호텔 새 단장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 기

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파르나스호텔이 이번에 가전·가구를 대규모로 기부해 주신 덕분에 여러 복지시설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저소득 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장만하기 어려웠던 생활용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루리 기자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농식품부 '안정적 인력공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농업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 인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해 기계화·스마트농업 확산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에 본격적인 농번기(4~6월, 8~10월)에 대비하여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계절성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다.

지난 봄철 농번기(4~6월)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농가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상황

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다가오는 수확기(8~10월)에는 대책반을 재가동하고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개소에서 189개소 확대 운영하고,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부문 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는 인사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되고 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2천 5백여명(5월 기준)의 계절근로자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농번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가 호응이 높다.

한편, 농업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주택 부족시설로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내 농업인 주택 상한면적을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가장기 인력수급 분석 및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 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산하여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작업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농작업 단계별 기계 개발이 완료된 마늘·양파 주요 주산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중점 추진하고, 발농업 농기계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관행농법 위주의 노동집약적 노지 농업에는 현장 수요가 많고 즉시 적용가능한 적정 스마트농업 기술 중심으로하여 자율주행 농기계·스마트 관수 등 솔루션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문성은 기자

경희궁 일대, 서울광장 10배 역사문화공원 조성된다

경희궁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서울 대표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 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첫 시작은 경희궁지로, 지난 10일 흥화문과 승정문 사이의 정비방안(안)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희궁은 도심 속 대규모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평균 방문객이 15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 인근 경복궁 1일 5만7430명, 덕수궁 2만8150명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경희궁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경희궁지 역사정원 착공을 시작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한양도성 및 돈의문 복원 등 2035년까지 경희궁지 역사정원 조성 및 주변 녹지네트워크 연계, 교육청부지 기능전환 및 역사박물관 이전방안 모색, 한양도성 및 돈의문 복원,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및 공간 재구성 등 4대 테마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희궁지내 역사정원을 조성한다. 차량진입로 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철거하고, 궁궐숲 조성 및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인다. 비워져 있는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흥화문과 승정문 사이 공간은 연내 우선 정비하고,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경희궁 주변과의 물리적인 경계도 지속 개선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새문안로변은 가로정원 조성하여 입구성을 제고하고, 경계부는 담장을 정비하고, 지형 극복이 가능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및 기상박물관 인근으로는 기후환경숲을 조

성 교육·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둘째,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기능 이전을 고려하여, 경희궁 서측은 시민대학, 서울시 차고지와 함께 공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도입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L"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1988년 경희궁지 내 건립을 어렵게 승인받아, 2002년 개관되었다. 시대별 중점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전 적정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4대문 중 유일하게 미복원된 돈의문 복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동사거리일대 돈의문 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상기 구상(안)을 바탕으로 역사학자 및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경희궁지 일대 활성화를 위해 역사정원 조성 및 연계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공간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상 여가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희궁지와 연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방감을 확보한 구체적 재정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멈추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치희 기자

서울진로직업발람회, 가상현실 미래직업 체험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경중)은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진로직업발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관, 진로상담관, 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이 소질과 적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체험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 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경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물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새로 개발한 '스마트의류개발자'를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참가객은

총 4종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랑 팀장은 "올해 총 6차례 직업체험 행사를 계획해 국군장병,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일산, 여주, 여수 등을 찾아다니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활동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다운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인성공유학교와 함께하는

50기 성민청소년복지학교

주제 세계를 품은 청소년
일정 2024. 7. 22.(월) ~ 7. 24.(수)
대상 중·고등학교 청소년
장소 성민원교육관(군포제일교회 비전센터), 현장 실습
문의 (사)성민원 031-397-2051
후원 군포제일교회

프로그램

강의1
'청소년을 위한 좋은 성품과 성교육'
이영숙 박사 (중남우성품학교 대표)


강의2
'중독-미디어-악물 예방'
김정희 대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

공동체PG
'자기이해와 긍정셀프리더십'
양지원 소장 (하음심리상담센터 소장)

봉사활동
'독거어르신택 가정방문 활동'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① 제4권 이사야②-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지역입니다
악한영결박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났습니다

최모산 목사

유튜브검색 ▶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 음성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2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2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향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원활한 혈액순환! 하루 2캡슐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항산화 건강까지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평범한 크리스천 라이프의 비밀스러운 힘

신간 '작은 꿈을 꾸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작은 꿈을 꾸거나 평범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없다. 아니면 적어도 평범함을 인정하거나 평범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세상 역시 언제나 큰 꿈을 꾸고 웅대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 세스 루이스 작가는 시선을 돌려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날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의 기준에 갇힌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작은 꿈을 꾸며, 참된 자유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아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중심을 잡아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꿈을 좇으려고 한다. 그 자체로는 나쁠 게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나는 먼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질문, '당신의 꿈은 당신을 정확히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꿈을 좇기에 앞서 먼저 어떤 꿈을 꾸고자 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큰 꿈이 항상 더 낫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어디서 더 나은 꿈을 찾고자 하는가? 당신이 사는 세상은 작다. 당신의 꿈은 작다. 당신의 문젯거리들은 작다. 당신의 삶은 작다. 당신이 어떻게 비교하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작든 상관없다. 당신은 여전히 작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작을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가지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신다. 무수한 은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내 몸을 지으셨다. 나는 우연의 소산도 아니다. 내 몸의 모든 세부 기관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이야기 속 인물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각을 바로잡아 주실 때, 당신

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예가 인간 사회에서 누리는 그 어떤 지위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왜소함에 겸허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서사시에서 역할을 맡은 것에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내게 본래 의도되었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구주를 알고 본받는 삶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 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주신 무한한 풍요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당신의 꿈의 크기와 그 꿈에 쏟는 주위의 관심은 꿈의 원천과 방향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당신의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향해 흐르고 있는가? 세상은 당신이 작은 꿈들에 쏟은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주목받거나 박수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쏟은 노력을 대해 지금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세상이 불의에 눈 감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정의

신간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주로 신앙을 키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문제로 여긴다. 또 하나님이 정의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세워야 할 정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그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다.

저자 마이클 로즈 교수(캐리집레대학교 구약학)는 정의가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며 그것은 "자유주의 의제이기 때문이거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

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자는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제자도는 오직 형성에 집중한다. 내 어떤 시절의 제자훈련은 하나님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자주 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인이 된 후의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이야기, 성품, 관습, 정치로 구성된 도덕 형성의 피드백 고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의 능력이나 그 공동체의 정치와 훈련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성품의 공동체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옳은 사회적 위계질서와 불균등한 권력 분배가 존재하는 세상을 계속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는 재물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상호 교류했을 것이다. 그러나 율기의 결말 부분에서 정의의

미덕은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들과 창조적 연대를 추구하고 그 압제를 공고히 하는 구조의 변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의존하지 않을 것 같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는 덕목을 기르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정의가 결여된 지혜라는 시각에서 볼 때 뇌물을 단순히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잠언은 망가진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타협하는 것이 '병든 지혜'임을 인정한다.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다! 여호와가 땅의 티로 삼으신 지혜(잠 3:19)는 제사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의(잠 2:3), 우주의 직조물 속에 새겨져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잠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의로운 지혜는 '실제 그대로의 세상'에서 살라는 요청이다. 잠언의 실제적 지혜로, 뇌물 수수처럼 효과 있고 현명해 보이지만, 불의하기에 어리석은 것으로 배척해야 하는 관행을 식별할 수 있다. 정의가 없는 지혜는 약탈적인 어리석음이 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언스턱

사람들은 인생의 온갖 영역에서 난관에 봉착한다. 그만두고 싶은 직업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에 억지로 매여 살아간다.

작가, 예술가, 작곡가, 운동선수, 과학자, 기업가도 꿈꿔 못하는 상황에 처해 며칠씩 때로는 수십 년씩 제자리에 갇혀 있다.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수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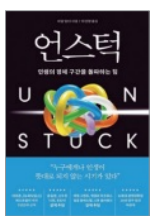
에 빠진 채로 살기도 한다.

우리는 인기 있는 성공 사례만 주로 접하기 때문에 이런 고질적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한다. 남들 성공담만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은 우리보다 적은 장벽에 직면한다고 믿게 된다.

누구나 장애물에 직면하며 정체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기보다 특징이다.

책 '언스턱'(부키는 인생의 정체 구간을 돌파하는 힘을 강조한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불안할 때는 불안해지라고 조언한다. 억



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무리수를 두기보다 불안이 엄습하도록 내버려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에 대비하면 불안함은 저절로 수그러든다는 것이다.

저자는 생각을 단순화할 것도 권한다. 핵심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떨쳐낸 생각보다 문제는 간단해진다. 단순하게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일도 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 생각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다. 저자는 일단 뭐라도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이 안 써지는가? 타이머를 60초로 맞추고 글쓰기에만 집중해 써보자. 중요한 건 행동의 양이나 질이 아닌 행동 그 자체다. 이수지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



세상의 어떤 신(神)도 자신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창조주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주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외에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가짜요, 우리들이 지어낸 것일뿐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산물일 뿐입니다. 모두 다 거짓되고 인간적이며 영육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나 완전한 신성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날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시 139:4)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신 32:10), 당신과 마주 앉아 있으면 저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처럼 외롭거나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유능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가 생겼고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천지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제 것이 됩니다(눅 15:31). 변상봉 '성경을 품은 기도, 주기도문'



진정한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동체와 하나님 안에서 의 삶이 있는 관계를 통해 태어납니다. 믿음은 공부를 통해 좀 더 풍성해지고 튼튼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해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한다고만 해서 살아 있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심겨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구유에서 출발하여 제자들의 발 아래로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높고 큰 것을 용납함으로써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정체성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서는 낮아짐을 지향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시오. 이재영 '천국은 이웃의 발 아래'



'교리란 넓은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렇게 보자면, 사실 모든 참된 설교는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 설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교리를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리 설교'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주의하여 풀어내는 설교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설교를 오래 듣는 성도들 중에는 설교자의 설교가 좌중우돌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다. 왜 그럴까? 설교자가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준다. 성경과 교리를 동시에 제시하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1형식'은 성경을 강해하면서 교리를 삽입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는 성경 강해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할애한다. '제2형식'은 교리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관련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우병훈 '교리 설교의 모든 것'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출애굽기 16:21

여러분이 풍성하게 즐기는 것들을 계속 받으려면 전적으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만 의존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도록 애쓰십시오. 절대 옛 만나를 먹고 살려 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 가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기쁨 부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영이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성소의 금 뿔에서 오는 신선한 기쁨이 부어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이 멈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

나님의 산 정상에 올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있으려면, 여러분을 그곳에 올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소에 고정시켜 주실 때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면 여러분은 곧 곤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구세주가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빛그가 즉시 어둡게 할 수 없는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지만, 예수

님은 그것을 완전히 깜깜하게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슴에서 기쁨을, 여러분 눈에서 시력을, 여러분 삶에서 힘을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뜻에 따라 그 위로를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이 매순간마다 주님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과 "우리의 날수대로 우리의 힘이 강건해질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주 주의 보좌로 달려가 계속해서 그의

사람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 공해 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감사하지 않는 바람에 그 은혜가 그치지 않는 않았습니까! 그의 금빛 소낙비는 절대 그치지 않으며 그의 축복의 구름 역시 우리가 거하는 곳 위에 항상 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사랑 속에서 주님의 복된 이름을 송축하며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열방 선교단 제공

날 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 (6)

1723년 7월 26일 금요일 오후

결심문 실천의 삶

57번째 결심문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전적인 안식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아주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밤

맨튼 박사의 설교를 실천하는 삶

평생도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자. 맨튼 박사의 시편 119편 설교 27번째 설교에 따라 나의 모든 죄, 유혹, 어려움, 슬픔, 두려움, 소망, 소원,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즉,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내 길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자.

1723년 7월 27일 토요일 오전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유혹으로 크게 시달리거나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는 생각을 완전히 몰입시키고, 잠생각이 나지 않도록 산수나 기하학이나 다른 공부를 하도록 하자.

1723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강의를 준비하는 자세

여러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열려질 때는 먼저 나 자신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당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지혜롭게 해야 할 것들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자. 때때로, 나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쉽지만, 반대로 머리 상황이 잘되리라는 확신이 들 때는 하나님이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는 데는 다음의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첫째, 그런 상황이 내게 불이익이 되기보다는 이익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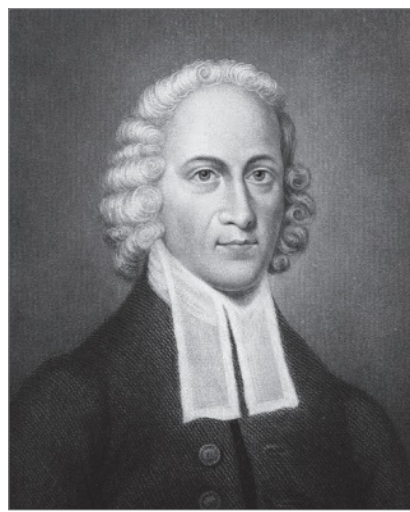
둘째, 그런 상황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실제적인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723년 7월 30일 화요일 밤

자기점검과 타산지석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내 약점의 일차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내가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모든 실제적인 이유



들을 찾아내어 거꾸로 추적해 보고, 세밀하게 내 생각의 아주 사소한 핑계까지 검사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다. 때때로, 설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을 행하자. 8번째 결심문을 참고하자. 그래서 특히, 내가 범한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기회로 삼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고 내 교만을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의 악의를 보고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애통해하는 기회를 삼자. 그리고 다른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

1723년 7월 31일 수요일 오후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

고난을 겪은 후에는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내가 어떤 유익

을 얻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자문 해 보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문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꼬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자. 그리고 아주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믿지 마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난의 말을 믿지 마자.

1723년 8월 4일 안식일 아침

감정 다스리기

기분이 최고로 좋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떠돌아다니는 내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결심했다.

1723년 8월 6일 화요일 오후

지성과 감정의 바른 관계

마음이 아주 심하게 부패했으며, 지성이 감정과 욕망에 의해서 눈멀고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든다. 내가 처음 뉴욕에서 왔을 때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의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키게 되면 둘 다 함께 망하게 된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Timothy 3:2-3 NIV

Now the overseer is to be above reproach, faithful to his wife, temperate,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 overseer : 감독자

- be + to 부정사 : 여기서는 '의무'를 나타냄

- reproach : 책망(責望)

- above reproach : 책망할 것이 없는

- faithful : 헌신적인, 충실한

- temperate : 온화한

- self-controlled : 자제력이 있는

- respectable : 존경할 만한

- hospitable : (손님에게) 친절한

- given to drunkenness: 자주 술 취하는

- quarrelsome : 다투기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3장 2-3절

그렇다면 그 감독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에게 헌신적이며, 온화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존경할 만하고, 친절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술 취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상냥하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Proverbs 17:22 NIV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 cheerful: 즐거운, 상쾌한

- heart: (감정, 특히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마음

- medicine: (특히 액체로 된) 약

- crushed spirit: 짓밟힌 정신

- dry up: 바싹 마르게 하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 16%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중정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화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송태훈 칼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송태훈 목사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이며, 모세 이후의 공식적인 첫 대선지자이고, 사사 시대 말기에서 왕정 시대 초기(BC 약 1050-1000)에 걸쳐 활약한 정치 및 종교 지도자이다. 그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다(삼상 1:9-18, 민 6:1-5). 그 기도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성행 수행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다(삼상 1:9-28). 그때부터 사무엘은 예비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예복을 입고 회막에 딸린 방에서 생활했고, 아침에는 성전의 문을 열어놓는 등 엘리의 조수 노릇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예비 제사장 사무엘에게 말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불초한 자식으로서 어리석은 불신앙적 행동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의 집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알렸다(삼상 3:1-18). 12살 남짓 됐을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고하기가 두려웠다. 여호와께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고하는 엘리의 명령으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보고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성인이 되기까지 공인된 여호와의

선지자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다(삼상 3:15-20). 엘리와 그의 집에 대한 심판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와의 계약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비보를 듣고 죽은 엘리의 급사로 이어졌다. 여호와와의 관계는 얼마 후 반환됐지만, 백성들이 영적인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선지자로서 종교적 및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됐다. 지도자가 된 청년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 및 신앙적 개혁에 몰두했다. 언약궤를 모셔온 후 20년이 지난 무렵에는 국민의 도덕적 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됐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 공식 신앙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올라왔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자, 우뢰와 천둥이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퇴시켰다. 이스라

엘 사람은 벨갓까지 블레셋을 추격했고, 대승리를 거뒀다. 수호자요 지도자로 사무엘 사사를 세우신 증거로 백성들은 인식했다. 사무엘은 매년 한번씩 벨갓 길갈, 미스바를 공식 순회하면서 사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개혁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삼상 7:15-17, 19:18, 20). 사사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정을 피하여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나이 많아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직분을 두 아들에게 물려 줬다. 그들은 부친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며 판결을 굽게 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신정정체(神政政體)를 왕정정체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왕제(王制)는 인간적인 전제의 위험이 따르지

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무엘에게 명령했다(삼상 8장). 하나님의 지시를 좇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대 왕으로 사울을 선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 공인하기 위해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해서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했다.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했다(삼상 10장).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은 제대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전달했다(삼상 15:1-3).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데 대해 책망했다(삼상 15:12-22).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울을 버리고 그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주었다고 선언했다(삼상 15:23-31). 사무엘은 사울에 이어 앞으로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때가 되매, 선지자 사무엘은 죽어 본성(本城) 라마에 장사되었다(삼

상 25:1,28:3).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기브온의 성읍 바로 위에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부근으로 한층 높아 눈에 띄는 곳이다. 오래 전에 죽어서 사무엘의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그의 고상한 인격과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21세기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신실한 정신과 신앙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한나를 이어받았다. 사무엘은 어떠한 어려운 곤경에 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의 모든 행동을 결정할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도 장악하려고 시도조차 아니했다. 지위나 명예 또는 권력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무엘을 늘 따라다녔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지표로 삼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사무엘에게 따라다녔던 복들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것을 믿어야 한다.

신앙과 지혜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물계(76)



권혁승 박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잠언 1:7)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신앙 안에서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다. 이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기도 하다. 신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된 주제라면, 지혜는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이다. 신앙과 지혜는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도 설명할 수 있다.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이라면, 지혜는 땅을 포함한 인간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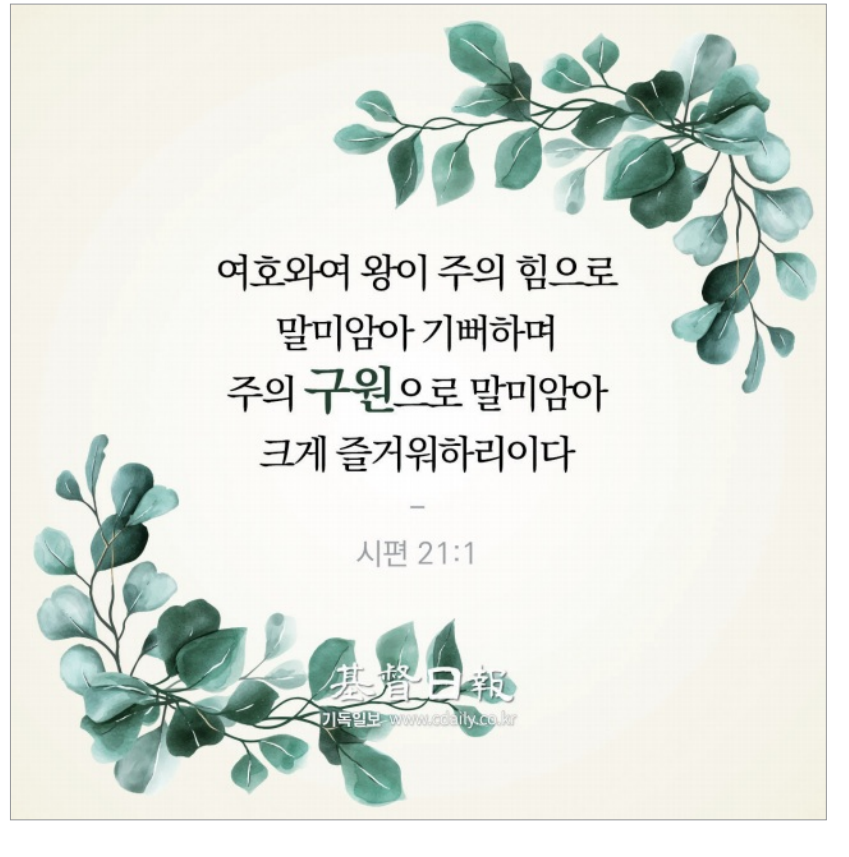
룩을 의미한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까지도 거룩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신앙은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기신 조건 중의 하나가 지혜였다.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행 6:3)이 기준이었고, 안디옥교회의 첫 목회자로 파송 받은 바나바 역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행 11:24)였다. 여기에서 ‘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토스’는 지혜롭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혜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다(잠 1:7).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아트’는 ‘안다’라는 의미의 ‘하다’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얻는 지식으로서 삶의 지혜와 동의어이다.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쉬트’는 ‘시작’이라는 뜻이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로 나아가는 첫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신앙이 삶의 지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의 깊이는 곧 삶의 지혜로 측정된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성경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비롯하여 광야여행을 거쳐 가나안 정복과 정착 등 생존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삶의 지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지혜로 이어진다. 구원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라면, 지혜는 이스라엘 신앙의 마지막 종결인 셈이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혜가 실종되면, 신앙은 깊이 없는 찬박한 것으로 전락될 수 있다. 지혜의 시작이 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움으로 벌벌 떨며 도망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서있는 우리는 마치 거대한 산 앞에 서있는 모습과도 같다.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산, 그러나 산을 통하여 드러나 자원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경탄의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는 신비로운 산, 그 모습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를 직접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주인 보디발 부인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외친 요셉의 고백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과 지혜였다. 요셉의 경외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반전의 통로가 되었다. 지혜는 미련하지 않은 것이다. 미련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미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벨’은 기본적으로 ‘두껍다’는 뜻이다. 이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매사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 지혜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 때로는 일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 각자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같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전과 감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

는 것이 곧 미련함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지혜가 결여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멸시하는 결과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 그것이 신앙의 지혜요 실질적인 성령 충만함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1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하나님께서 하시느 일**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고기를 잡는 배의 선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장로로 피택을 받았고, 임직을 앞두었는데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임직을 차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직일을 일주일 앞두고 생업인 고기 잡는 일을 위하여 배를 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직원을 월급도 주고, 사업과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한번 띄우면 한 달 정도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임직식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생업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임직식을 위하여 배를 띄우지 말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직식보다는 생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고민 끝에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깃배에 팔린 식구들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바다에 있으면서 고기를 잡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려면 몇

주를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치면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고, 2-3일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고기를 더 잡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2-3일 더 기다렸다가 고기를 더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손해가 많이 나지만 항구로 복귀하느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 고기를 못 잡게 하는데, 그래도 고집하고 임직보다는 고기 잡는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바

람을 불게 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돌아가서 임직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래,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고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임직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속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깃 값이 평소보다 몇 배나 올라서, 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가격이 올라서 만선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장로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운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잠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 16:9). 우리는 이미 앞에 수많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면 화가 나고, 미워하고, 삶의 껍질을 쉽게 깨버리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위

하여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지도 않습니다. 섬기며 사는 삶은 언제든지 불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은혜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방법은 사람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세워줍니다. 은혜의 생활을 위

아름다운교회 제공

교회오빠

동행하시는 하나님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시편 105:37-4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어느 곳 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

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사막 길이었습니 다. 사막에서는 낮에는 불뿔더위가 지속 되고 밤이 되면 기운이 영하로 떨어져 얼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것은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모세에게 달려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들여 죽이려고 하느냐?" 이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도록 했습니다.

반석에서는 생수가 '칼칼' 쏟아져 나오므로 이스라엘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배고픔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림으로 고기를 먹으며 광야 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행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복을 전파를 위해서 파송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추수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찌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요 28:20)"고 약속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눈물과 고난 속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창골산 복목사

성경상식

선민(chosen people)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신의 선택이란 창세기 아브라함 족장과와의 언약을 가리킨다. 그때 신은 아브라함에게 잠깐 유일신만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인들은 선택받은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하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거나 자만할 이유가 없었다.'

그 반대로, 신이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도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아야

했다. 선지자 아모스는 신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아모스 3:2)" 이스라엘은 신의 율법을 받았다. 만약, 어리석게도(혹은, 비열하게도) 신의 뜻에 불충 한다면, 신은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민족이 그 응징을 대신할 것이다. 신은 거룩하고 정의로우므로 신의 선민은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즉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들녘 출판사 제공

향유옥합

순종의 미학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길은 간단히 제시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서적인 질문은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과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세계는 그리 간단히 대답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쟁지역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왜 우리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 되어서 "저 복 받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하고 외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으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이 지닌 사랑을 인정할 때만이 상대편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일 때만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은 사랑의 결핍 속에서 태어나 결핍 가운데서 이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기에 순종은 가장 어려운 숙제로 함께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외칩니다. 내

가 나의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바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 말고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확증할 수 있던 말인가! 신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탁월함으로 공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시키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김영국 목사

(이 글은 『하나님의 노래하는 자들』의 제3과 <교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수빌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개척교회를 처음으로 찾았을 때, 음악에 대한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예배에서 수준 높은 우수한 음악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반주와 찬양대의 첫 몇 소절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노래와 연주 대신에 들려오는 그 탁월한 소리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스튜디오 레코딩처럼 들렸습니다. - 그러면서도 음악은 완전히 살아있었고 예배는 열정적이었으며 전적으로 진실에서 우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 어린 예배와 음악적인 빼어남 -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최선보다는 그보다 못한 수준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빼어난 음악의 가능성이 다음과 같은 말로 무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들리든 상관(care)치 않으셔. 그분은 그저 즐거운 소리를 원하시지...”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상관(care)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예배 인도와 노래의 임무를 주어졌을 때, 그들은 탁월함(Excellence)으로 공교하게(Skillfully) 연주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수빌 교회에서 데이브가 인도하는 예배 찬양대가 모범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저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희망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평범(mediocrity)에 힘을 실어주거나 칭송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적으로 공교하게, 그리고 동시에 진정 어린 예배로 회중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궤도 수정

그 후 저는 저의 지나치게 거의 배타적인 음악적 탁월성에 대한 집착이 예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왕 중의 왕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예배 속에서 성실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추세와 풍조는 온갖 생각과 사상을 떠오르게 하고 멀리 퍼져나가게 하고 있지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음악적 우수성의 추구가 더 이상 저의 성공적 예배 경험에서 최우선의 측정 척도는 아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실상 이전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찬양대

의 소명과 기초와 관계가 찬양대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찬양대의 음악적 우수성도, 비록 더 이상 사역의 최우선 요소는 아닐지라도, 그 중요성의 급상승을 생각해볼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모든 것을 상습시킴으로, 음악적 탁월성의 가치도 증가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먼저 소개된 팀 데이비스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이 시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아직도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겠소. 결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악적 우수성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분석해보죠. 우리는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의 어떤 학구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하는 주안점은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음악적 언어에 익숙하고 유창해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음악 스타일은 단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멜로디와 하모니와 리듬의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음악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음악적 언어로 만들어내는 음악의 3요소가 지배하는 다양한 변주곡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감독이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을 반영하는 교회가 있지만, 더 좋은 경우는 그래도 교인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반영하는 교회입니다. 최상의 경우는 두 쪽 모두가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을 반영하는 교회이겠지요. 저는 어느 주일 오후에 켄터키주를 횡단하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로 매우 순박한 시골교회의 회중들이 부르는 애절한 찬송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비록 음악적으로는 미숙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서 저는 저절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또한 뉴잉글랜드와 유럽에 있는 대성전들과 미국의 흑인교회와 미국과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은 500명의 자메이카 예배당 목회자들에게 흑인 가스펠 성가 부르는 방법을 강의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건 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여러분이 예배 인도의 책임을 맡았을 때는, 음악적 언어나 혹은 여러분의 회중과 가장 성공적이며 완전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알아내고 그 언어들로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고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배에서 회중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의 유일한 격정과

경고는, 그러한 탁월함을 적용하는 어떤 음악적 상황에서는 회중의 음악적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찬양대가 사람들에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예배인도자는 예배 인도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적 탁월함 속에 영적인 차원과 음악적인 차원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회중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 속의 자신들의 음악적 언어를 완전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 :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적 예배 표현은 공교롭게도 흑인 복음성가입니다. 그 코드와 리듬과 열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음악을 백인 청년으로서도 꽤 잘 연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관찰을 정도로.

최근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흑인 가스펠 뮤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은 자신들의 교회 회중의 음악적 언어가 아니라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음악감독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곡의 흑인 가스펠 뮤직풍의 노래를 찬양대가 불렀을 때, 이 교회 회중의 리더들이 무슨 음악을 선호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크리스 톰린(Christopher Dwayne Tomlin—백인 CCM 아

티스트)은 예스! 키크 프랭클린(Kirk Dwayne Franklin—흑인 가스펠 뮤지션)은 노!

저는 흑인 가스펠 뮤직을 볼 때, 그 음악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해 얼마든지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는 비록 약간의 발 구르기와 소리 지르기를 동반하지만, 찬양대가 로큰롤 예배 송을 부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찬양대가 그 소리를 제대로 내기에 충분히 잘다면, 할 수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왜 탁월함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음악에서 탁월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 말할 수 없이 귀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래를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값없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허락하면, 음악은 무자비한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장에 나오는 패러다임 차트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재능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최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 그러나 그것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전심의 찬양



이선춘 목사

찬양은 전심으로 부르짖고 응답을 기다리는 순례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3-148)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한 하루의 생명을 온 힘으로 삽니다. 말씀이 지닌 힘을 전부 내게 주옵소서.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온 생명입니다. 응답하시면 교훈들과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노래가 지니고 있는 메시지와 울과 감성의 힘이 있다. 말씀의 의와 반복과 아름다움이다. 찬양은 세 가지가 함께 녹아있다. 메시지는,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부르짖고 말씀을 바라보고 외우려고 새벽에 눈을 뜨고 주를 기다렸습니다.이고 울은, 이미 한국어로 옮겨서 달라졌지만 짧은 대구의 간명한 리듬으로 메시지의 힘을 일으킨다.

이 시인은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스스로 작은 영혼을 설득하여 머리

를 조아리고 주를 간절히 찾으려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온 감성을 모아 공동체를 향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모두가 예배다. 찬양은 동시적인 자기 예언적 예배이다. 찬양은 소망하고 감히 갈망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신을 단련시켜 높디높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처절히 사모하고 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에 머무르려 한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요 구체적 실천의 발현이요 전적인 전환을 예기한 약속의 마음이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노래하는 자신을 높이지만 찬양하는 이들은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인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노래합니다. 주님, 이 모두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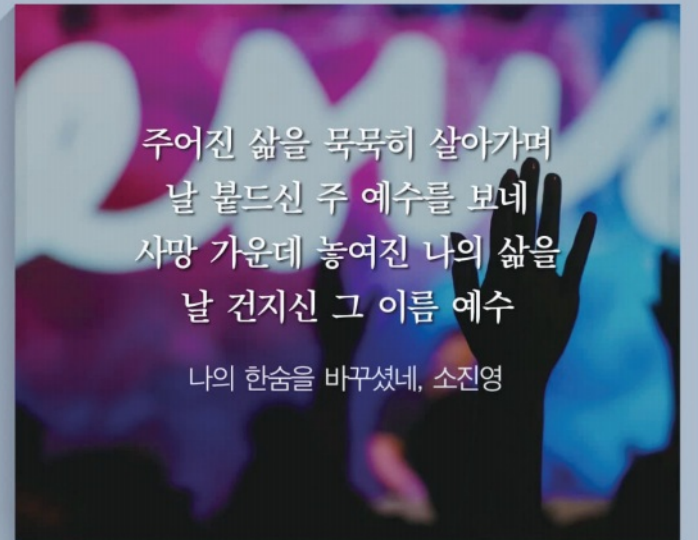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 하나 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소박한 첫걸음입니다.

완전한 변화, 끝없는 움직임이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주의 나라에 나의 생명이 있기를 나의 영혼이 주님의 것을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노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찬양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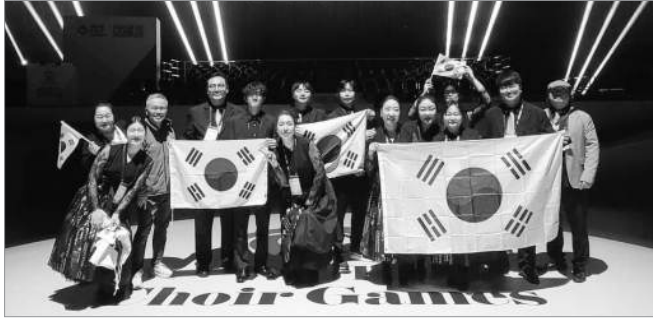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 세계합창대회 2회 연속 은메달



세계합창대회 팜 앙상블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 ©빅콰이어



세계합창대회에서 공연한 빅콰이어 ©빅콰이어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대표 안찬용, 단장 이주영)가 40개 국 250여개 팀 11,000명의 싱어들이 출전한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합창대회의 메달 경연인 챔피언 경연 팜 앙상블 부문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해 2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일명 '합창 올림픽'으로 불리며 전세계 최대 규모 대회인 세계합창대회(World Choir Games)는 지난 10일 오클랜드에서 막이 올랐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대회 중 빅콰이어는 10-14일 진행된

Part 1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대표합창단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빅콰이어 안찬용 대표(서울장신대학교 교수)는 "결정과 준비부터 지금의 열매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이 과정과 훈련을 감당하며 대서사의 꿈을 이룬 단원들과 은메달의 꿈을 이루도록 섬겨준 분야별 리더들의 값진 코칭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만든 감동이며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 명의 스타나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작지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마음 한목소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다. 빅콰이어의 다음 행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빅콰이어의 팜앙상블 경연곡은 'Hello, A million dreams', 'Man in the mirror', 'It's You(여러분)'의 4곡이었다. 빅콰이어는 "모든 곡이 끝났을 땐 관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팜 앙상블 경연이 치러진 오클랜드 Q Theatre 홀은 전석 매진이 되었고 입장을 하지 못한 대기자만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서양화가 김부견 작가, "우주(宇宙): 우리동네" 초대 개인전

무궁무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살고 있는 집을 하나의 우주로 생각하고 그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서양화가 김부견 작가. 그가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 까지 "우주(宇宙): 우리동네" 타이틀로 서울 마포구 소재의 아트한갤러리(대표 유상원)에서 전시를 진행 중에 있다.

김부견 작가는 "집을 중첩되게 그려서 끝이 없는 우주로 비유해 넓은 세상을 만들었고, 조화와 균형은 작품의 기본 구조로 화합이라는 공간으로 승화시켰다. 단순하게 표현된 집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진지한 시간을 예술로 확장하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왼쪽부터 아트한갤러리 유상원 대표, 김부견 작가. ©주최 최 제공

기성, 제4회 성탄 캐럴 찬양곡 공모전 개최



지난 제118년차 기성총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성경교회(총회장 류승동 목사, 이하 기성)는 제4회 성탄 캐럴 찬양곡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공모전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Jesus! Our Savior)'를 주제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공모작은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표현하는 순수 찬양곡이어야 하며, 이전에 다른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서울 만리현교회(조준철 목사)에서 열리며, 총회장상과 서울신대 총장상을 포함한 6곡이 선정된다. 수상작들은 시상식 후 편곡 작업을 거쳐 전국 교회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에세이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강단 서울은혜(김태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자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사상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류영모)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시간 21 사사기 건드리기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큐티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년담화
8:00	20 신앙에세이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아주 특별한 찬양	50 말씀의 센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00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롬게하소서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20 말씀의 센터 솔로몬교회 홍성의 목사 50 김인숙 박사의 송아트0'	20 휴먼네트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 40 목사님 궁금해요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20 말씀의 센터 남양주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시간 21 사사기 건드리기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송정우 목사(경신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0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규) 30 오직예수 (이영훈)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믿음의 리액션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풍성한교회) 30 신앙에세이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센터 안양성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 30 말씀의 센터 소성교회 강복철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30 만나 워십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노크토크에 물어봐 20 세계대기행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먼들(정준경) 30 새롬게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공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감동처럼 30 말씀의 센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맨살교회)	10 교회가는길 50 믿음의 대화 36.5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망으로	00 말씀의 센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영혼의 양식-송암(김정곤)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30 마커스워십	10 한국로잔 목회자 컨퍼런스 5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유마의 예배 (김영준)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엘드교회 안병태 목사
19:00	00 2023 다나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만나다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트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정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여주목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세계대기행 50 로드기행 이경의 건다보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CBS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50 CBS 교회소식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10 나의 십자가 30 제 33회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00 CBS NEWS 10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3:00	00 더 메시지 50 신앙에세이	10 GOODTV 시네마 마가복음 2부 4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누가복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오늘 만나는 큐티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리바이츠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40 힐링송 50 우리들의 지식살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TV 맞춤형 (나침반) 시즌2	10 새롬게하소서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20 말씀노트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20 세계대기행	00 [말씀] 김윤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나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	00 말씀의 창 - 하나임교회 이학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용인신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 퀸즈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울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레시 생명의 말씀-박중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 50 CBS 교회소식	00 우리 함께 찬양해 40 힐링토크 회복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